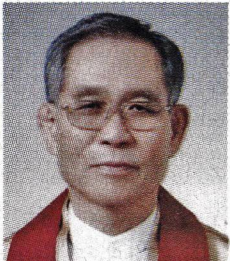


불교총지종



총지종은 불교의 생활화, 생활의 불교화를 통해 참 대승의 정신을 구현하는 불교 종단입니다.

부처님오신날 봉축법어



종형 효강

인류사의 대 스승이자 성인인신 부처님의 탄신을 봉축하오며, 모든 인류의 마음속에 법신 비로자나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의 광명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한없는 자비와 지혜로 이 땅에 오신 부처님께서 일생토록 무명(無明)에 빠진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 원만구족한 지혜를 몸소 깨달아 일깨워 주시고, 동체대비의 크신 자비로 탐·진·치 삼독에 물든 중생을 제도하는데 온 힘을 기울이셨습니다. 이러한 부처님의 삶은 비록 역사적으로는 유한했지만 깨달음의 요체로서 법신(法身)은 시공(時空)을 초월하고 생멸(生滅)에 들지 않는 영구불변한 존재로서 지금도 온 우주법계에 충만해 있습니다.

무명(無明)의 어둠 밝히는 자비의 등불

부처님께서 이 사바세계에 오신 참 뜻은 만중생이 부처님의 상품을 가진 절대평등자임을 선언하신데 있습니다. 나와 이웃과 자연 모두는 두두물물(頭頭物物)이 진리의 요체로서 불성(佛性)을 지니고 태어났으며, 부처님과 나와 나는 하나임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이념과 사상, 계급과 계층, 지위와 위상은 서로 달라

우리 모두는 너나할 것 없이 소중한 부처님의 불성을 가진 절대평등자로서 서로 존중해야 합니다.

우리 주위에 살아있는 모든 중생은 부처입니다. 그러므로 고통받는 중생을 외면하고, 미워하고, 혐하고, 억압한다면 대비구세(大悲救世)의 서원을 저버리는 일이고, 자기방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고통을 함께하는 일은 부처님이 대비구세로 오신 뜻을 실천하는 일이며, 무명(無明)과 이기심(利己心)에서 허덕이는 중생을 제도하는 일이며, 불의(不義)와 증오(憎惡)로부터 인간을 해방하는 일입니다.

생명이 있는 모든 중생이 불성을 지닌 고귀한 존재이기에 우리가 애초한 마음으로 사람을 사랑하듯이, 부처님은 자비심으로 모든 중생을 사랑하셔서 당신과 같은 자리에 오를 수 있도록 용기를 일깨워 주십니다.

부처님 오신날을 맞이하여 법신 비로자나 부처님의 대자대비(大慈大悲)와 지혜(智慧)로 사회의 어둠을 밝히고, 일체중생을 고통에서 해방하는 자비의 등불을 밝히시기 바랍니다. 성도합시다.

부처님오신날 봉축사



통리원장 우승

서원합니다.

부처님께서 이 사바세계에 오신 뜻은 인천(人天)의 이익과 행복과 안락을 위해 오셨으며, 원만 구족하고 청정한 법행을 설하시기 위해 이 세상에 나투셨습니

남을 배려하는 동체대비의 생활

다. 부처님께서 전도 선언에서 “많은 사람들의 이익과 행복을 위하여, 세상을 불쌍히 여기고, 인천의 이익과 행복과 안락을 위하여, 법을 펼쳐라.”라고 설교하셨습니다.

우리나라에 불교가 들어온지 1700년이 되었습니다. 그만큼 많은 불교문화 유산을 가지고 있으며, 고승대덕의 청정한 수행이 오늘에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통과 수행, 전도의 정신이 밝은 연등처럼 환하게 비치도록 수행, 정진합시다. 우리 마음이 안일하여서는 아니됩니다. 훌륭한 문화유산에 안주하고, 편안함과 나태함에 안일하여서는 아니됩니다.

부처님 오신날을 맞이하여, 우리는 넉넉한 문화유산과 마음의 교양과 평온을 세상 사람들과 함께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일체중생의

이익과 행복과 안락을 위해서 말입니다.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시기 전에 “중생들이 먹이가 없으면 먹이를 주어 목숨을 잇게 하고, 병든 사람을 보살피고 주어 편안하게 해주며, 가난하고 고독한자를 보호하여 주며, 선정을 닦은 이를 위하여 옷과 밥을 보시하여 보살피주는, 이 네가지 법이 있으면 부처님이 계시는 것과 다름이 없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의미는 우리 중생들이 생명의 존엄성을 더욱 자각하고, 남을 배려하는 마음, 이웃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동체대비의 정신을 더욱 발현해나갈 것을 바로 일깨워 주기 위해서입니다.

부처님께서 동체대비의 정신과 함께 “우리는 지금 무엇을 위해 어디로 가고 있는가?” 하는 자기반성과 깊은 성찰의 시간임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자신들을 조용히 되돌아보는 시간과 자세가 필요한 때입니다. 우리는 부처님 오신날을 맞이하여 화합과 이해, 사랑과 보시로서 서로의 상처를 치유하는 자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우리 중생들이 생명의 존엄성을 더욱 자각하고, 남을 배려하는 마음, 이웃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동체대비의 정신을 더욱 발현해나갈 것을 일깨워 주시고 계십니다.

‘나’와 ‘너’라는 분별심과 이기심, 아집과 편견, 시기과 질투, 원망심과 간담심으로 가득찬 나를 버리고, 크고 돌림겨 자비로운 마음으로 회전하여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법신 비로자나 부처님의 가르침에 귀명하여 참 ‘나’를 찾는 시간이 되도록 우리 모두 땀 흘려 정진합시다. 성도합시다.

“종단 중흥의 발판 마련”

불사법요, 종헌중법개편, 기획단 구성



총지종은 지난 4월 18일부터 21일까지 통리원에서 개최된 제67회 춘계 강공회에서 불사법요, 종헌 중법개편, 승직자 교육활성화, 정보화 시대에 적합한 사원운영, 종단 조직의 개편과 기능의 극대화, 종단중흥을 위한

기획단 구성, 신도시 사원개설 등 종단중흥의 조직정비, 교육체계정비와 불단장엄에 대한 정책을 마련하고 종단중흥과 교회활성화를 위한 발판을 마련하였다.

강공회 개강식에서 효강 종령께서는 법어를 통해 “강공은 참종사부터 종단의 모든 승직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각 사원에서 경험한 교화의 방편과 방안 등을 서로 교환하고, 종단의 교회활성화를 도모하는 중요한 모임으로 앞으로도 그 전통과 명맥을 유지해야 하며, 부처님의 자비를 실천하는 대비행과 ‘나’보다는 ‘남’을 먼저 생각하는 이타행의 실천을 해야 한다. 또한 승직자로서 중생교화를 위해 엄격한 계행과 철저한 자기수행을 겸비해야 하며, 이번 강공회에서는 종단

중흥을 위해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새로운 대안과 정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공회는 원의회, 재단이사회, 중앙 종의회, 승단총회 등 연석회의를 열어 총기 34년도 통리원과 유지재단 결산심의회와 더불어 종단에 건의된 안건을 처리하고, 종단의 현황을 조망하였다.

특히 전승단이 참석한 자리에서 효강 종령께서는 “승직자의 자질향상과 더불어 변화와 개혁으로 종단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화합과 단결로 새로운 도약의 장을 마련하고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새로운 출발을 해야 한다.”며 “불사법요와 의식의 정비, 보편타당한 법률집행을 위해 종헌, 중법개정을 추진을 위한 전문인력과 승직자로 구성된 전문위원회를 구성하고, 불사의식 중 탐자관을 할 때 관법의 중요성을 인식하기 위해 관법의 시간과 방법을 연구하고, 윤원구족을 상징하는 원탑설치, 농촌지역의 경우 사회의 도시화로 인구가 감소하여 농촌지역에 위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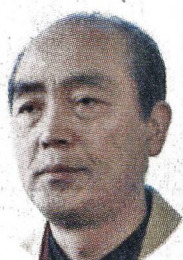
한 사원을 대도시 주변의 신도시로 이전하는 방안모색, 종단의 조직과 기능을 극대화하기 위해 업무의 전문성을 부여하고, 종단중흥의 기획단을 구성하여 종단의 문제점을 조망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겠다.”고 종단중흥의 정책을 발표하였다.

이번 강공회에서는 사감원장과 사감위원의 임기가 만료되어 새로운 사감원장에 지성정사를 지명하여 중앙종의회에서 만장일치로 선임하고, 보궐된 제9중앙종의회 안성, 우원정사를 새로 선출하였다. 특히 사원의 외부에 오륜탑, 석탑, 관세음보살 등 조형물을 설치하는 방안이 승단총회에 제시되어 통과됨으로써 사원의 새로운 양상이 대두될 것으로 보인다.

종단은 이번 강공회를 통해 종단중흥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고, 청정한 승풍진작, 시대변화에 적합한 교회방편개발, 새로운 정책제시, 종단의 위계질서를 바로 잡으며 새로운 도약의 일로를 걷기 위한 정책들을 모색하였다.

“종단 기구의 전문화”

법장원장, 사감원장, 교육원장 직무대행 임명

법공정사
법장원장지성정사
사감원장화령정사
교육원장 직무대행

총지종은 지난 4월 25일 총지사 서원당에서 법장원장에 법공정사, 사감원장에 지성정사, 교육원장 직무대행에 화령정사를 임명하고 사령장을 수여하였다.

사령장 수여식에서 효강 종령께서는 “종단의 조직을 정비하고, 기구

의 전문화를 통해 종단기구의 활성화로 교회활성화를 추진하겠으며, 부처님 오신날 연등법회 불사가 끝난 후 통리원에 대한 조직정비로 중앙기구인 법장원과 교육원, 통리원에 대한 조직정비를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이 달의 종조법설

나무는 비와 바람으로서 성장하나 비와 바람이 비록 싫다고 하겠으나 그로써 자라는 것이며 사람은 고난하여 성공하나 고난없이 즐거움이 있을 수 없다. 고난을 겪는 중에 인격이 완성하느니라



총기35년(불기2550년) 부처님 오신날을 봉축합니다

천년의 잠을 깨고 우리앞에 나타난 밀교! - 불교총지종!

불교총지종은

「불교의 생활화, 생활의 불교화」를 실천합니다.

만다라의 금강법계궁 총지도량의 진언세계에서 즉신성불의 대도를 이루시기 바랍니다.

종령 효강

통리원장 우승

법장원장 법공 사감원장 지성 교육원장직무대행 화령 총무부장 선도원 재무부장 시정 사회부장 환수원 교정부장 지희심
서울경인 교구장 연등원 대구경북 교구장 지광 충청전라 교구장 밀공정 부산경남교구장 대원



불교총지종

The Buddhism chongjijong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2동 776-2

☎ 02)552-1080~3 전승 02)552-1082 //www.chongji.or.kr

사 설

세계불교포럼을 바라보는 우리의 각오

중국불교협회와 중국종교문화교류협회 주최로 제1회 세계 불교포럼(중국어명 세계불교포럼)이 지난 4월 12일에서 18일에 걸쳐 중국에서 개최되었다. “세계의 화합은 마음에서(和諧世界, 從心開始)”라는 가치를 내걸고 개최된 이번 대회에는 37개국 1000여명의 불교지도자와 학자들이 참석했다. 본 중단에서는 우승 통리원장과 법장원 화령 정사, 그리고 보정 김종인 박사가 참가하여 전 세계에 불교종지종을 알리고 왔다. 특히 우승 통리원장은 한국 재가불교종단을 대표하는 지도자로서 보타산에서의 세계 108인의 고승대덕 합동법회에 참여하여 출가와 재가의 구분을 초월하지는 이번 대회의 취지를 한껏 살렸다. 중국 항주의 인민대회당과 관음성지로 알려진 주산(舟山)의 보타나가산, 그리고 중국발전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상해 등지를 거치면서 치루어진 이번 행사는 한 마디로 중국의 저력을 엿볼 수 있는 대규모의 행사였다. 중국 관계자들은 물론 세계 각지의 참가자들이 이구동성으로 경탄하듯이 세계의 그 어떤 나라도 흉내내기 어려운 철저한 준비와 엄청난 물량공세로 세계로 뻗어가는 중국의 새로운 면모를 불교를 통하여 보여주는 행사였다.

중국은 이번 포럼을 통하여 중국의 화합과 중국불교의 화합, 그리고 세계불교의 화합이라는 세 가지 목적을 위하여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 이러한 중국의 선언은 불교를 자국의 정신적 지주로 삼고 인류공동의 관심사를 함께 탐구해 불교적 가르침으로 세계평화에 이바지하겠다는 것을 단언하여 공포함으로써 다른 나라의 중국에 대한 온갖 비난을 불식시키고 불교를 통하여 내부결속을 강화하겠다는 다분히 정치적인 의도가 깔린 행사라고 볼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불교포럼이라고는 하지만 화교권의 불교지도자들이 참가인원의 대부분을 차지했고 논의내용 또한 미리 약속된 소수의 발표자들의 발표에만 한정되어 실속 없는 공허한 구호에 그친 것이 없지 않았다.

이러한 몇 가지의 흠결에도 불구하고 중국정부가 나서서 이런 행사를 적극 지원함으로써 불교의 위상을 드높이고 불교계의 화합을 도모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것은 같은 불자로서는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우리 한국불교계는 이러한 행사를 통하여 스스로를 돌아보고 어떻게 세계에 한국불교를 알리며 그 위상을 정립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진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다. 문화혁명 등으로 잠시 불교의 흐름이 멈춘 것을 두고 한국불교가 중국불교보다 우수하다는 터무니없는 우월감을 지니고 그동안 중국불교의 저력을 간파하지 못했던 일부 불교지도자들은 이제 중국을 배우는 자세로 임해야 할 것이다. 특히 불교진흥을 위한 중국의 젊은 승려들의 적극적인 활동과 청정한 계율준수의 풍조는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부분이다. 중국불교의 거대한 외형적 유산과 중국 신도들의 열화와 같은 신심을 부러워만 할 것이 아니라 개인의 수행과 불교대중화에 적극 앞장서는 승직자 본연의 자세를 되찾는 것이 한국불교로서는 시급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 더하여 좁은 터전에서 서로가 잘 낫다고 다들 것이 아니라 세계로 뻗어가는 한국불교를 그려보면서 더 넓고 큰마음으로 불교인들끼리 화합하여 대중을 이끌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과거와 같은 소극적이고 고루한 교화방식을 탈피하여 시대에 맞는 방안을 개발하고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불교를 펼쳐 이 땅을 불국토로 만들기 위해서는 대상을 가리지 말고 배워야 할 것은 겸허하게 머리 숙여 배워야 한다. 우리도 하루 빨리 그들의 장점을 파악하고 우리의 모자란 점을 돌아보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육바라밀 실천으로 평안과 행복”

상반기 49일 진호국가 불공 회향



◇서울 총지사 교도들이 법신 비로자나 부처님의 가지력으로 건강과 행복, 소원성취를 발원하는 상반기 49일 진호국가 회향불공을 올리고 있다.

총지종은 상반기 49일 불공 회향불사를 지난 4월 8일 서울 총지사를 비롯하여 전국사원에서 전국 스승과 교도, 사부대중들이 동참한 가운데 봉행하였다. 상반기 49일불공은 지난 2월 19일 입재하여 4월 8일까지 49일 동안 국가의 안녕과 평화, 재난 불생과 산업발전을 위한 진호국가 불공과 자녀들의 건강과 경제 해탈을 염원하는 불공을 드렸다. 상반기 49일 회향불공에 즈음

하여 우승 통리원장은 “불교란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참 진리를 체득함으로써 부처님처럼 살고자 노력하고 중생들에게 사로잡힌 번뇌와 집착, 망상, 아집을 제거하여 해탈에 이르게 하는 길을 가르쳐 주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행복이란 자신의 마음을 바로잡고 육바라밀을 실천함으로써 마음속에 편안함과 환희심을 가지는 것으로 마음자리에 따라 결정되는 것입니다. 49일 불공동안 항상 마음자리를 살피면서 내가 무엇을 잘 못했는지 참회하고, 남편과 자식,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고 웃는 마음과 실천을 행하고, 불평과 불만을 버리고 과거의 나쁜 기억을 버리는 참 수행을 위해 마음을 닦는 불공을 하였다면 반드시 부처님의 큰 공덕이 있을 것입니다”라고 말하였다.

알림방

- 특정 대중사 열반3주기 추선불사를 5월 4일 총지사에서 봉행합니다.
- 부처님 오신날 봉축 연등불사를 5월 5일 전국사원에서 봉행합니다.
- 한일불교우호교류대회가 5월 17일부터 21일까지 일본 나가노에서 열립니다.
- 하반기 49일 불공이 5월 28일부터 7월 15일까지 봉행됩니다.
- 총지사 이상철각자, 박성영보살 장녀 이지은양의 결혼식이 5월 20일 서울 자유선터웨딩홀에서 12시에 열립니다.

대법고

수행자가 되려는 생각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행자가 되는 길은 뜻하지 않은 고난과 역경이 기다리고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중생들의 고통과 고난을, 아무런 지고, 동체대비의 정신으로 시방세계 모든 중생들을 위해 자비심으로 이타행을 실천해야 하는 스승의 길은 끈기, 끈은 고 속도도가 아니고, 구불구불한 골목길이고, 드넓은 잔디밭이 깔려진 길이 아니고, 눈물이 가득한 가시밭길입니다.

이렇게 험난한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스승이 되기 전인 예비 스승부터 엄격한 계행과 교육, 자비실천이 앞서야 합니다.

일반 회사에서도 사원을 뽑기 위해 소정의 시험을 실시하고, 합격한 신입사원을 대상으로 실무직을 차원에서 학습훈련 등

다로운 교육훈련을 상당기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대부분은 무사히 교육과정을 마치고 어엿한 회사의 일원이 되겠지만 그 중에는 낙오자도 분명히 나올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은 회사를 좀 더 향상된 방향으로 발전시켜 대외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필연적인 노력의 일환이라 할 수 있습

니다.

그래서 체력 및 실무교육 등 엄격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오랜 기간의 신입사원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종단도 만인을 대상으로 부처님 말씀과 뜻을 올바르게 전달할 수 있는 훌륭한 승직자 양성에 조금더 심혈을 기울이고 체계적인 교육방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종단은 몇 개월의 시무과정을 마치면 스승의 계를 받고 일선사원에서 교화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종단의 발전과 스승님들이 일선사원에서 다양한 중생들을 교화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2년정도 예비스승으로서 수행자의 길을 걸으며, 어렵고 힘든 과정을 인내하며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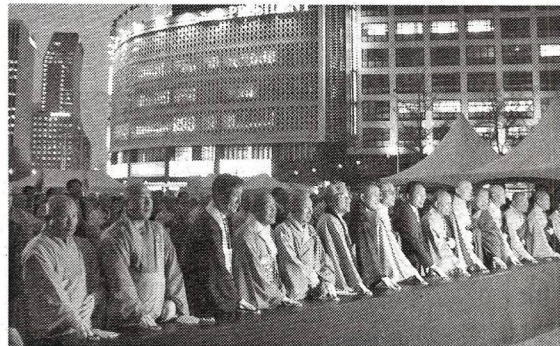
행하면 교화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타 종단의 경우는 수행자의 교육기간인 행자생활도 몇 년이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소정의 대학과정을 수료해야만 스승이나 스승의 계를 받고 일선사원에서 교화를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교육의 필요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실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사실들을 고려해

“진리와 화합의 석등”

4월 18일 시청앞 점등식



◇시청앞 점등식에서 우승 통리원장을 비롯하여 종단대표자들이 진리와 화합의 석등 점화를 하고 있다.

봉축위원회는 4월 18일 저녁 7시 시청앞 ‘서울광장’에서 열린 점등식을 갖고 부처님오신날을 알리고 세계인과 국민, 불자들이 하나되는 대동한마당 ‘연등축제’의 서막을 열었다. 특히 올해는 희망과 사회통합의 메시지를 통해 사회 양극화라는 당면과제를 해결하고 사회통합과 국민통합으로 나아가는 길에 한 줄기 등불을 밝힘으로써 부처님오신날의 참뜻을 깨달아 진리의 불빛이 온 누리에 퍼지길 기원했다.

시청앞 점등식은 지관 봉축위원장 스님(조계종 총무원장)과 이명박 서울시장의 연꽃등을 든 남녀 화동들의 인도로 점등식장에 들어서는 것으로 시작됐다.

우승 총지종 통리원장을 비롯하여 운산 태고종 총무원장·정

산 천태종 총무원장·회정 진각종 통리원장 등 교계 주요 종단 대표자와 원담 조계사 주지·해자 도선사 주지·원해봉은사 주지 스님 등 서울 지역 주요사찰 주지 스님들과 김

의정 조계종 중앙신도회장, 양성홍 포교사단장, 임동규 서울시의회 의장 등 사부대중 1000여명이 참석해 부처님오신날의 의미를 알렸다.

지관 봉축위원장 스님은 점등식에서 “하루속히 평화적으로 남북이 통일되고 나라 부강하며 모든 국민이 몸과 마음이 항상 평안하도록 보살펴 주옵소서. 독립을 위해 몸을 바친 충의열사와 국가를 수호하기 위하여 순국한 유해공군 영령들과 모든 이들의 선망부도와 유주무주한 모든 고혼들을 서방극락세계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축원했다.

“진리와 화합의 석등”은 화엄사 각광전 석등(국보 12호)을 본따 높이 18m 폭 8m로 부처님오신날(5월 5일)까지 시청 앞을 밝힌다.

했지만 엄격한 계행을 지키고, 체계적인 교육과 수행을 하다면 먼 훗날에는 더욱더 존경받는 스승님으로 남게 될 것이고 교화 발전에도 보탬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경전에 “아무리 학식이 있다고 하더라도 청정한 계행이 없는 사람은 좋은 곳으로 인도해도 가지 않고 아무리 부지런히 실천해도 지혜가 없는 사람은 분명히 동쪽으로 걸어가지만 결과는 서쪽으로 향해 걸어가는 것과 같다.”는 구절이 있습니다.

스승님들은 교도들에게 곱이치는 삶의 골짜기 골짜기를 지나칠 때마다 바른 길로 인도하는 등대요, 어둠의 그늘 속에서도 삶의 희망과 가치를 부여하는 등불인 것입니다.

훌륭한 스승님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예비스승부터 엄격한 계율, 다양하고 체계적인 교육과 수행, 교화방편의 개발이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부처님의 참사랑을 어려운 이웃과 나눕시다

2006년 2월 27일부터 2006년 3월 23일까지

개천사 광동규 4. 24 30,000	만보사 민분순 4. 18 10,000	백월사 이갑진 3. 30 10,000	실지사 정경자 4. 25 5,000	해정사 정은선 4. 13 20,000
개천사 권영남 4. 14 10,000	만보사 배정임 4. 13 10,000	백월사 임승민 3. 29 15,000	실지사 정연수 3. 31 5,000	해정사 조성기 2. 28 10,000
개천사 김동근 4. 12 10,000	만보사 송효제 3. 31 10,000	백월사 임승민 4. 12 5,000	실지사 정우석 4. 25 10,000	해정사 지성인 4. 13 20,000
개천사 무명씨 3. 29 5,000	만보사 지 성 3. 31 10,000	벽룡사 오기순 3. 30 10,000	정각사 구정희 4. 20 20,000	화음사 박지웅 3. 29 10,000
개천사 이희권 3. 30 10,000	밀인사 무명씨 3. 29 10,000	벽룡사 오기순 4. 19 10,000	정각사 김분순 4. 6 20,000	화음사 박지홍 3. 29 10,000
관성사 황성녀 3. 29 10,000	밀인사 신대식 4. 19 5,000	선립사 대 덕 4. 24 10,000	정각사 김정자 4. 18 10,000	화음사 하성호 3. 29 5,000
기 로 대 관 4. 25 10,000	밀인사 신동의 4. 19 5,000	선립사 정복지 4. 18 10,000	정각사 남숙자 4. 6 20,000	화음사 하은호 3. 29 5,000
기 로 대자행 4. 25 10,000	밀인사 신동희 4. 19 5,000	성화사 우담바라 4. 19 100,000	정각사 박말연 3. 29 5,000	흥국사 강한빛 2. 28 20,000
기 로 법장화 4. 25 10,000	밀인사 이연수 3. 29 10,000	수인사 김봉기 4. 4 10,000	정각사 박훈취 4. 19 10,000	만포장 4. 4 10,000
기 로 불멸심 4. 25 10,000	밀인사 이재호 4. 5 5,000	수인사 한애숙 3. 30 20,000	정각사 신옥필 3. 29 5,000	무명씨 2. 28 5,000
기 로 상지화 4. 25 10,000	밀인사 이혜성 4. 19 5,000	수인사 한애숙 4. 20 20,000	정각사 신옥필 4. 21 5,000	이화수 4. 17 10,000
기 로 수증원 4. 25 10,000	밀인사 정정희 3. 29 5,000	실보사 송희준 4. 14 10,000	정각사 조현필 2. 28 5,000	진관사 4. 19 10,000
기 로 자선화 4. 25 10,000	밀행사 서상교 4. 25 100,000	실보사 안경숙 4. 21 5,000	정심사 박옥관 4. 13 20,000	
단음사 이규성 4. 12 5,000	백월사 박삼순 3. 30 10,000	실보사 이순옥 4. 14 5,000	총지사 이인성 4. 13 30,000	
단향사 공철봉 3. 24 10,000	백월사 유승태 3. 29 5,000	실지사 박병성 2. 28 5,000	통리원 지 정 4. 25 20,000	
단향사 행원심 3. 30 20,000	백월사 유승태 4. 20 5,000	실지사 손우성 3. 31 5,000	해정사 박종석 4. 13 20,000	

후원회
가입안내

불교 총지종 사회복지재단 후원회는 부처님의 참사랑을 주위의 어려운 이웃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분들의 모임입니다. 여러분의 정성은 재단의 복지사업에 소중히 쓰여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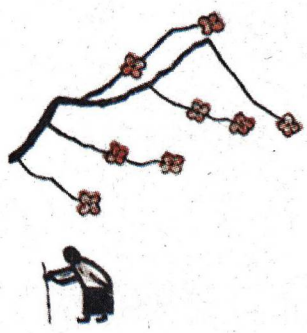
후원금 납부방법

1. 단체일 경우 회장님이나 담당자를 통하여 납부하시면 됩니다.
 2. 후원금 납부는 지로 또는 아래 금융기관에 자동이체를 하시면 됩니다.
 3. 회원번호란에 소속회원명을, 통신란에 주소를 기재해 주시면 지로용지는 후원자님 앞으로 발송해 드립니다.
- 지로번호 : 7668610
- 우리은행 : 122-177171-13-104
- 예금주 불교총지종 사회복지재단

불교총지종 사회복지 재단
전화 552-1083, 3452-7485

풍경소리

사라지지 않는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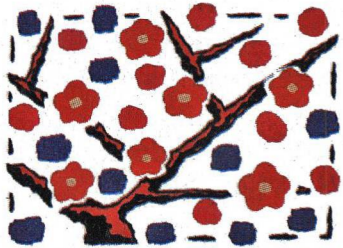


모독과 거친 말, 불쾌한 말들이 몸에 해를 끼치지 않는데, 다른 사람이 나를 미워하는 것이 나를 해치지 못하는데, 무엇 때문에 그를 싫어하는가?

명예나 재산 얻는 것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싫어한다면 어리석은 일이다. 내가 얻은 명예와 재산은 사라지지만 죄업은 언제까지나 남는다네.

『입보리행론』중에서

항상 첫 맛과 같이



관화/남궁산

차를 마실 때 과거에 마셨던 차맛을 가지고 현재의 맛과 비교한다면 그 차맛은 첫 번째

맛이 아니라 이미 두 번째 맛일 뿐입니다. 차를 마실 때마다 과거의 맛과 비교하지 않는다면 그 맛은 늘 첫맛입니다.

사람을 만날 때도 과거 생각에 얽매이지 않는다면 그 사람과의 만남은 항상 첫 만남이 될 것입니다. 매일 반복되는 출근길에서도 늘 첫 출근이라 생각한다면 날마다 가슴 설레는 하루가 되지 않을까요? 지운스님(동화사 감주)

어리석은 나그네



관화/남궁산

나그네가 강가에 이르렀습니다. 마침 주인 없는 나룻배가 있어 강을 무사히 건널 수 있었습니다.

그 나룻배가 너무 고마워 나룻배를 등에 지고 여행길에 오르다보면 사람들은 그를 어리석다 할 것입니다.

문득 우리를 돌아 볼 때 우리는 버려야 할 것들을 너무 많이 등에 지고 살아가는 나그네가 아닌가 합니다.

강현미/시인

이달의 명상

우리가 수행을 한다는 것은 생활 속에서 "참 나"에 의지하여 사는 것을 말합니다. 생활속에서 끊임없이 참 나에 대한 믿음을 갖고 생활하다 보면 내가 진짜 있다는 것이 믿어지고 체험으로 알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뿌리에 물을 주고, 영양분을 주는 일과 같습니다. 실천이 없으면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더 큰 믿음을 얻기 위해 노력하십시오.

믿음은 자기 스스로 실천하고 증명해야

천을 해봐서 스스로 그 맛을 보고, 검증이 되면 또다시 믿음이 완성됩니다. 이와 같이 실천을 통해 믿음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각자 수행하는 그 사람들이 믿음을 스스로 완성해 가는 것입니다. 결국 그 믿음을 갖는 것은 부처님이 그것을 증명하는 것도 아니고, 조사스님이 증명하는 것도 아니고, 스승님이 증명하는 것도 아닙니다.

을 보고, 과연 차갑구나, 덥구나 하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자기 마음에 달려있습니다.

그러므로 부처님의 말씀을 따로 들으면 안됩니다. 그 말씀을 자기 것으로 알고 자기가 실천하고, 부처님의 말씀을 그대로 증명해 내면, 말하는 자와 말을 듣는 자가 하나가 돼서 밝은 믿음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자기 마음을 믿는 것입니다. 자기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의지처로 삼는 것입니다.

원정대성사와 함께 하는

VISUAL밀교 ~전수경전 제 3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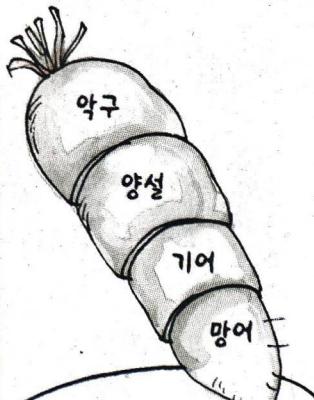
관공림/정수일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전수경"의 첫머리가 입조심하라는 "정구업진언"이라고 했지요?

에, 대성사님. 테이프를 불러 버릴까요?

하하하! 입조심 하라는 말은 아예 말을 하지말라는 뜻이 아니고 바른 말, 좋은 말, 해야할 말을 가려서 하라는 뜻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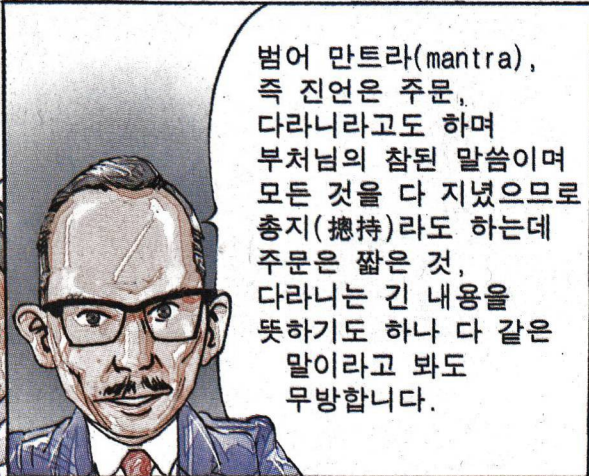
구업은 크게 악구(惡口), 양설(兩舌), 기어(綺語), 망어(妄語) 네가지로 나뉘었습니다.



악구란 악담, 즉 나쁜 말. 양설은 사람과 사람사이를 이간질시키는 말. 기어란 꾸며서 하는 교묘한 말. 망어란 거짓말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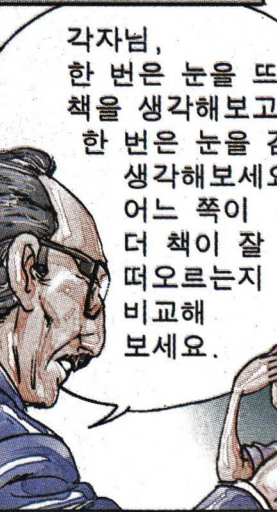
참, 대성사님 정구업진언의 진언은 무슨 뜻인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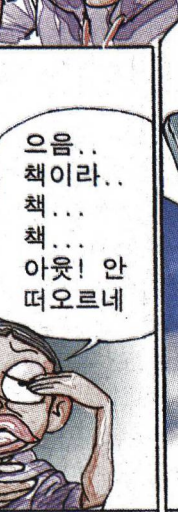
범어 만트라(mantra), 즉 진언은 주문, 다라니라고도 하며 부처님의 참된 말씀이며 모든 것을 다 지녔으므로 총지(總持)라고 하는데 주문은 짧은 것, 다라니는 긴 내용을 뜻하기도 하나 다 같은 말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하지만 진언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그 뜻도 모르고 외운다면 무슨 영험이 있을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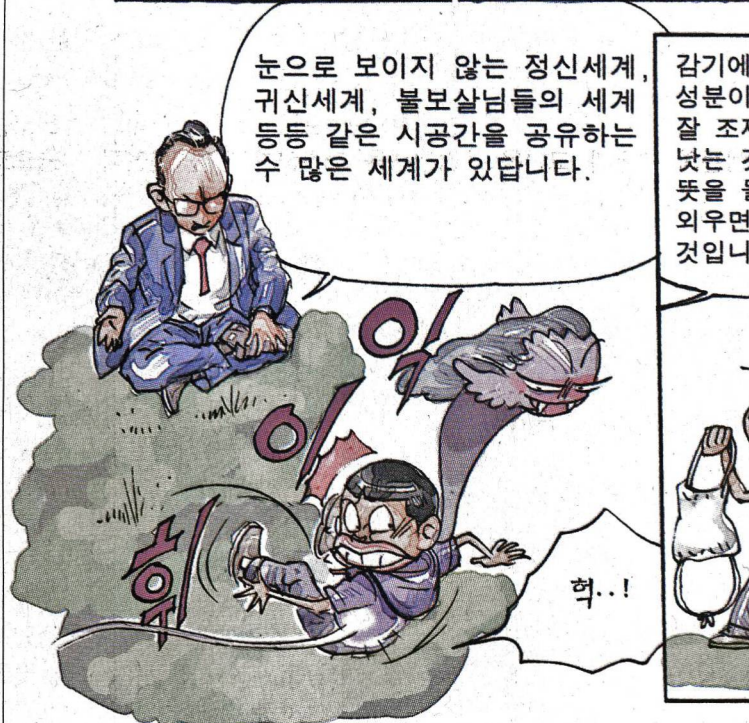


각자님, 한 번은 눈을 뜨고 책을 생각해 보고 한 번은 눈을 감고 생각해 보세요. 어느 쪽이 더 책이 잘 떠오르는지 비교해 보세요.



앗! 눈을 감고 생각하니 떠올랐어요.

바로 그것처럼 종생들은 눈 앞에 보이는 것만으로 세상을 이해하려 하지만 눈으로 볼 수 없는 세계도 많답니다.



눈으로 보이지 않는 정신세계, 귀신세계, 불보살님들의 세계 등등 같은 공간을 공유하는 수 많은 세계가 있습니다.



감기에 걸렸을 때 그 약의 성분이 뭔지 정확히 몰라도 잘 조제된 약을 먹고 나면 낫는 것처럼 진언도 굳이 뜻을 몰라도 지극한 맘으로 외우면 영험이 있는 것입니다.



에... 다음 과정을 공부하죠.

수리수리 마하수리 수수리사바하~~

mp3 나라랏! 노트북 나라랏! 양~ 양~

정수일홍티-http://home paran.com/octagonp

최 고 의 만 족

최 상 의 서 비 스



가구의 명품, 가구문화의 새로운 창조 - 라렌

라렌은 고객만족, 고객 감동, 고객 행복을 추구하며 믿음과 신뢰로 가구의 명품을 선도합니다

연락처 : 02)796-6336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동



전통시절 문학탐방

덕숭산 자락의 유서깊은 성(禪) 수행 정진 도량

충남 예산 수덕사를 찾아서



봄 하늘에 빛나는 햇볕의 고상함이 물씬 풍기는 화창한 날씨, 온 세상이 울긋불긋 연노랑 꽃들로 출렁이는 생명의 태동과 환희의 계절, 차장사이로 밀려오는 향긋한 봄바람에 너울너울 춤이 절로 난다.

서울에서 차를 타고 곧게 드려난 서해안 고속도로를 몇 분 달리다 보니 해미 톨게이트와 수덕사라는 꽃말이 보인다. 톨게이트를 빠져나와 예산으로 들어선다. 구불구불한 시골의 길이지만 들판에는 파릇파릇 새싹이 돋아나고 농부들은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인다. 길가에는 노란 개나리가, 산 속에는 분홍빛 진달래가 흔들리는 바람결을 타고 멀리서 찾아온 손님들을 반겨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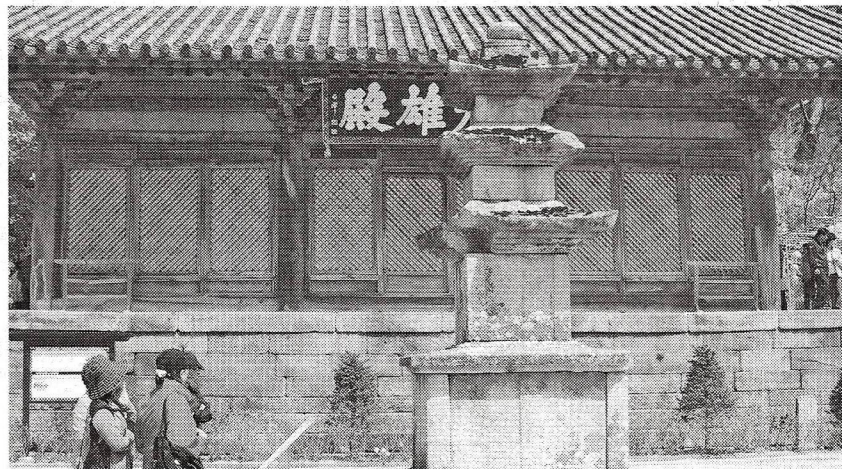
수덕사에 다다르니 벚꽃들이 활짝 활짝 웃음을 머금은 채 꽃잎들을 날리며 환영의 찬가를 부르고, 부처님 오신날을 맞이하여 아름다운 연들이 입구의 양 옆에 길게 늘어선 무명의 모든 중생들을 해탈케 하고 있다.

수덕사 일주문을 들어서니 수덕여관이란 허스름한 초가집에 큰 간판이 보인다. 수덕여관은 한때는 이 나라의 내노라하는 시인, 화가, 목객들이 드나들던 여관이다. 수덕여관에는 조선말기 여류시인이며, 문학가인 김일엽과 나혜석이 거처하였으며, 이후 당대 대화가인 이응노 화백이 생활하였던 곳이다. 일엽스님은 목사의 딸로 태어나 가부장적인 사회인습에 숨막혀 하였으며, 여성

은 남성을 위한 소모품이 아니라고 절규했고 여성은 남성을 위한 장식물이 아니라고 부르짖으며 몸을 던져 연출한 행위 예술가이며 전위 예술가였다. 또 여성은 어머니 아니면 창녀라는 이분법적 기독교 신화에 반기를 든 용기 있는 행동가였으나 파란만장한 32년 속세의 삶을 접고 수덕사 여승으로 출가하였다.

수덕여관에는 “엄마가 보고 싶어 현해탄을 건너 왔다”는 열네 살 앓은 소년, 일엽스님이 일본 유학시절 일본 명문가 출신 오다 세이쵸와의 사이에 낳은 사생아이며 일엽스님의 아들이다. 모정에 목말라 있는 아들에게 “나를 어머니라 부르지 말고 스님이라 불려라”라고 냉정하게 말했지만 그 소년이 잠자리에 들 때 팔 베게를 해주고 젖무덤을 만지게 해주었다.”는 일화가 전해오고 있다.

일주문을 지나 사천왕문을 들어서니 사천왕들이 ‘모든 중생들의 번뇌와 마장을 버리라’고 호령하는 듯



무섭고 근엄한 얼굴로 쳐다보고 있다. 사천왕문을 지나 계단을 올라가니 황화정루의 큰 가람이 보이고, 고풍스럽고 수 백 년의 인고와 벼를 함께 해온 대웅전이 근엄하게 서있다.

수덕사는 호서지방의 금강산이라 일컫는 덕숭산(495m)자락의 유서깊은 사찰로 599년 백제 지명법사가 세운 뒤 원효대사가 다시 지었다고 전해진다. 수덕사 대웅전은 1308년(고려충렬왕 34)에 건립된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목조건물(국보 제49호)이며, 경내에는 유형문화재 제103호인 3층석탑과 육괴정 문화재자료 181호인 7층석탑, 만공선사 사리탑이 있고, 1990년

중창한 황하루에는 부처님의 진신 사리가 봉안되어 있으며, 황하루 지하에는 성보박물관이 있다.

수덕사는 “홍주 마을에 사는 수덕이란 도령이 있었다. 수덕도령은 훌륭한 가문의 도령이었는데, 어느 날 사냥을 나갔다가 사냥터의 먼 밭치에서 남자를 보고 사랑에 빠지게 된다. 집에 돌아와 곧 상사병에 걸린 도령은 수소문한 결과 그 남자가 건너마을에 혼자 사는 덕숭산자라는 것을 알게 되어 청혼을 했으나 여러 번 거절당한다.”

수덕도령의 끈질긴 청혼으로 마침내 덕숭산자는 자기 집 근처에 절을

하나 지어 줄 것을 조건으로 청혼을 허락하였다. 수덕도령은 기쁜 마음으로 절을 짓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탐욕스런 마음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절을 완성하는 순간 불이 나서 소실되었다. 다시 목욕재개하고 예배 후 절을 지었으나 이따금 떠오르는 남자의 생각 때문에 다시 불이 일어 완성하지 못했다. 세 번째는 오로지 부처님만을 생각하고 절을 다 지었다.

그 후 남자는 어쩔 수 없이 결혼을 했으나 수덕도령이 손을 대지 못하게 했다. 하지만 이를 참지 못한



수덕도령이 덕숭산자를 강제로 끌어안는 순간 뇌성벽력이 일면서 남자는 어디론가 가 버리고 남자의 한쪽 머선만이 쥐어져 있었다.

그리고 그 자리는 비위로 변하고 옆에는 버선모양의 하얀 꽃이 피어 있었다. 이 꽃을 버선꽃이라 한다. 남자는 관음보살의 화신이였으며 이후 수덕사는 수덕도령의 이름을 따고 산은 덕숭산자의 이름을 따서 덕숭산이라 하여 덕숭산 수덕사라 하였다.”는 창건설화가 전해오고 있다.

아름답게 펼쳐진 가람, 장엄하게 늘어진 연등, 덕숭산 자락의 유서깊은 기막히 흐르고, 보아진 않지만 무릇 모든 중생들을 구제하신 옛 선사인 경허스님과 만공스님의 호탕하고 자유자재한 음성을 들으며 수덕사의 경내를 나선다.

총지종의보

불면증과 수면위생



김장규 원장

수면의 역할은 신체건강과 정신건강에 필수적인 것입니다. 신진대사를 촉진시키고 긴장을 완화시키고 생체리듬을 잘 유지시켜 나가도록 하는 마치 오케스트라의 지휘자와 같습니다. 불면증으로 받는 고통은 당해보지 않으면 설명할 수 없을 정도의 고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흔히 불면증이라고 생각되는 경우에도 사실은 불면증이라기 보다는 잠을 자고 깨어나는 수면

규칙적인 생활과 운동이 효과

리듬의 장애인 경우가 더 많습니다. 예를 들면 밤 두세 시가 되어도 잠이 오지 않아 찢절매다가 직장 때문에 아침 일찍 일어나야 하는 경우는 늘 수면이 부족한 상태를 느끼게 됩니다. 반대로 초저녁에 일찍 잠이 들어 새벽 이른 시간에 잠이 깨서 더 잘 수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경우들은 수면의 리듬이 앞뒤로 밀린 상태입니다.

진정한 불면증이라 함은 총수면 시간이 충분치 못한 경우를 말합니다. 무엇보다 낮시간 동안의 긴장, 스트레스, 생활리듬의 변화, 늘 이유없이 불안하고 긴장되어 있는 상태라던가, 우울한 기분, 주위환경의 갑작스러운 변화, 개인적 위기를 느낄만한 사건 후라던가, 장거리 여행 후 오는 시차적응, 불규칙한 근무 시간의 직업을 가진 사람 등 다양한 원인이 복합적으로 불면증을 유발합니다.

일시적으로 오는 불면은 큰 문제가 되지 않으나 불면이 지속되면 불안감과 짜증스러움, 무기력감, 의욕감퇴 등의 심리적인 후유증과 위궤양, 두통, 변비, 소화불량, 식욕감퇴, 무기력증 등의 신체적인 증세가 동반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의 불면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심한 불면은 전문의의 진단과 치료가 필요하지만, 그전에 불면증을 극복하기 위한 몇가지 지침이 있으며 불면증이 있는 분께서 쉽게명(수면위생) 정도로 생각하시고 기억한다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1. 규칙적인 기상시간을 철저히 지켜서 수면리듬을 정상화 시켜야 한다.
2. 낮잠은 가능한 피해야 한다.
3. 규칙적인 운동은 수면에 도움을 준다.
4. 취침 전 술을 마시는 행동은 수면의 질을 떨어뜨린다.
5. 커피, 콜라 등의 카페인 함유 음료는 수면의 적이다.
6. 잠자리에 눕는 시간을 정확히 하는 것이 수면리듬에 중요하다.
7. 피곤하다고 아무때나 자리에 누워 잠을 청하는 일은 삼가야 한다.
8. 편안한 수면을 위해 조용하고 안락한 침실 분위기를 유지해야 한다.
9. 잠이 오지 않으면 억지로 자려고 하지 말고 차라리 밤을 세우겠다는 마음가짐이 필요하다.
10. 즐거운 수면을 위해 골치아픈 생각을 미루자.

죽비소리

진실한 말이 최상이다

말하는 것이 모두 자기를 괴롭히지 않고 남까지 해치지 않음을 착한 말이라 하며 항상 사랑스러운 말로 남을 기쁘게 하고 또한 모든 악을 짓지 않아야 하리

부처님 말씀대로 말을 한다면 반드시 안락을 얻어서 열반에 나아가고 온갖 괴로움 끊고서 착한 말을 칭찬하리라 진실한 말은 단 이슬로써 가장 최상이니 진실한 말은 마땅히 큰 이익을 얻을 것이요 진실한 말에 서 있으면 착한 대장부라고 하리.

『별역집아함경』 중에서

총지종보 광고 및 후원을 기다립니다

가느다란 풍경소리가 시방세계 널리 퍼져 번뇌와 고통에 쌓인 중생들을 구제합니다. 애독자 여러분의 애정 어린 관심과 후원으로 총지종보는 부처님의 큰 법륜을 베풀고 있습니다. 총지종보의 발전과 부처님의 법륜홍포를 위해 광고와 후원 부탁드립니다.

주 소: 서울시 강남구 역삼2동 776-2, 총지종보사
전화: 02-552-1080~3
계좌번호: 우리은행 122-047811-13-060
예금주: 불교총지종

문화기행

앙코르와트 탐방 (1)

앙코르와트의 나라

킬링필드의 나라

캄보디아

총지종 법장원 연구원 보정 박사가 앙코르와트와 캄보디아의 현재 모습에 대한 감상을 정리하였다.

〈편집자 주〉

일행과 함께 앙코르 왓 인근의 시엠 립 국제 공항에 내리자 열대 지방의 후덥지근한 저녁 공기가 온 몸에 느껴졌다. 그러나 유난히도 추웠던 서울의 겨울 날씨를 겪다가 무더운 여름 날씨를 겪는데서 오는 신기한 느낌 때문에 더위로 인한 불쾌감을 느끼지는 않았다. 지리 상식에 비추어보면 너무도 당연한 일이지만 서울에 있었으면 6개월 후에나 겪을 여름 날씨를 불과 이틀 만에 겪게 되니 그저 신기할 따름이었다. 전날 하노이에서 하루 밤을 지내면서 서울보다 훨씬 따뜻한 날씨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엄동설한의 계절에 겪는 시엠 립의 열대 기후는 마냥 신기하기만 하였다.

시엠 립 공항은 국제공항이라고는 하나 활주로가 단 하나밖에 없는 조그만 시골 공항이다. 땅이 좁고 육상교통이 잘 발달한 우리나라에서는 볼 수 없지만, 땅이 넓은 나라의 중소도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공항이다. 후덥지근한 날씨를 느끼며 같은 비행기에서 내린 사람들을 따라 활주로가 있는 들판 한 가운데 달랑 하나 있는 건물에 들어서니 대략 천 평 되는 방 안이었다. 200여명 되는 정원을 가득 채운 비행기 한 대와 서른 명 가량이 정원인 쌍발기 한 대가 동시에 쏘아 낸 승객들이 모두 이 방에 들어서자 방 안은 콩나물시루처럼 되었다. 모두들 여기가 어딘가 하고 우왕좌왕하던니 이내 질서가 잡혀 갔다. 많은 사람들이 좁은 방 안에서 재빨리 짐서를 잡을 수 있었던 것은 이들 대부분이 관광안내원이 딸린 단체 관광객이었기 때문이었다.

이 방은 출입국 관리사무실이었다.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관광안내원들이 자신이 인솔하고 있는 일행의 여권을 모아서 일괄적으로 비자를 신청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비자를 받기 전에 미리 출입국 심사대를 통과했기 때문에 질서가 빨리 잡힌 것이었다. 캄보디아는 여행자들의 본국에 파견한 영사관에서 비자를 발급하는 것이 아니라 국경이나 공항에서 바로 발급한다. 아마도 세계 최빈국 가운데 하나인 국가 재정 형편상 세계 각지에 영사관을 설치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이 나라에 굳이 불법적으로 입국하여 놀러 왔을 사람도 없는 까닭에 이런 체계가 운영되는 것으로 보인다.

방 안은 질서가 잡혀갔지만 우리 일행이 사태를 파악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렸다. 우왕좌왕하다가 가까스로 이곳이 출입국 관리사무소라



는 것과 비자를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알아차리고 일부는 비자 신청서를 쓰고 일부는 여전히 우왕좌왕하였다. 그때 검은 제복을 입었지만 위압적인 모습과는 거리가 먼 작은 체구의 캄보디아인이 내게 다가와서 “안녕하세요”라고 인사를 했다. 웬 한국말인가 하고 의아해 하는데, 다시 “빨리, 빨리 가요 투웬티 스리 달러”라고 한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고 있으니 빙그레 웃으면서 재차 “빨리, 빨리 가요 투웬티 스리 달러”라고 하면서 손짓발짓까지 해 대었다. 눈치코치로 해석해 본즉 일인당 23달러만 내면 자신들이 비자처리를 일괄적으로 해 준다는 뜻이었다.

이 캄보디아인의 말뜻은 가까스로 알아차리고 나니, 이번에는 도대체 이 친구가 뭐하는 사람인가? 믿어도 되는 사람인가? 하는 의심이 들었다. 그는 자기한테 23달러를 내고 여권만 맡기면 비자신청서를 쓸 필요도 없고 비자 인

터뷰도 필요 없다고 하였다. 게다가 왜 23달러 이냐고 하는 나의 물음에 20달러는 공식적인 비자 신청비이고 3달러는 일종의 급행료라는 그의 말은 나를 황당하게 하였다. 걸모습을 뵈는 분명 이민국 관리인데, 하는 짓은 비자 브로커 내지는 사기꾼이었다. 이민국 관리로 보고 믿자니 하고자 하는 것이 영 황당하기 짝이 없고, 비자 브로커나 사기꾼으로 보자니 너무나 대담무쌍하였다. 아무리 대담무쌍한 브로커나 사기꾼이기로 서니 출입국 관리사무소에서 이민국 관리의 복장을 차려입고 브로커 짓을 할 수는 없었다.

별 희한한 인간도 다 있다 여기다가 문득 한국을 떠나기 전날 만난 여행사 직원의 말이 생각났다. 캄보디아 비자 신청서가 포함된 여행 일정이 담긴 책자를 주면서 공항에서 비자를 받을 때 1불씩 급행료를 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통과하는 데 몇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는 말을 하였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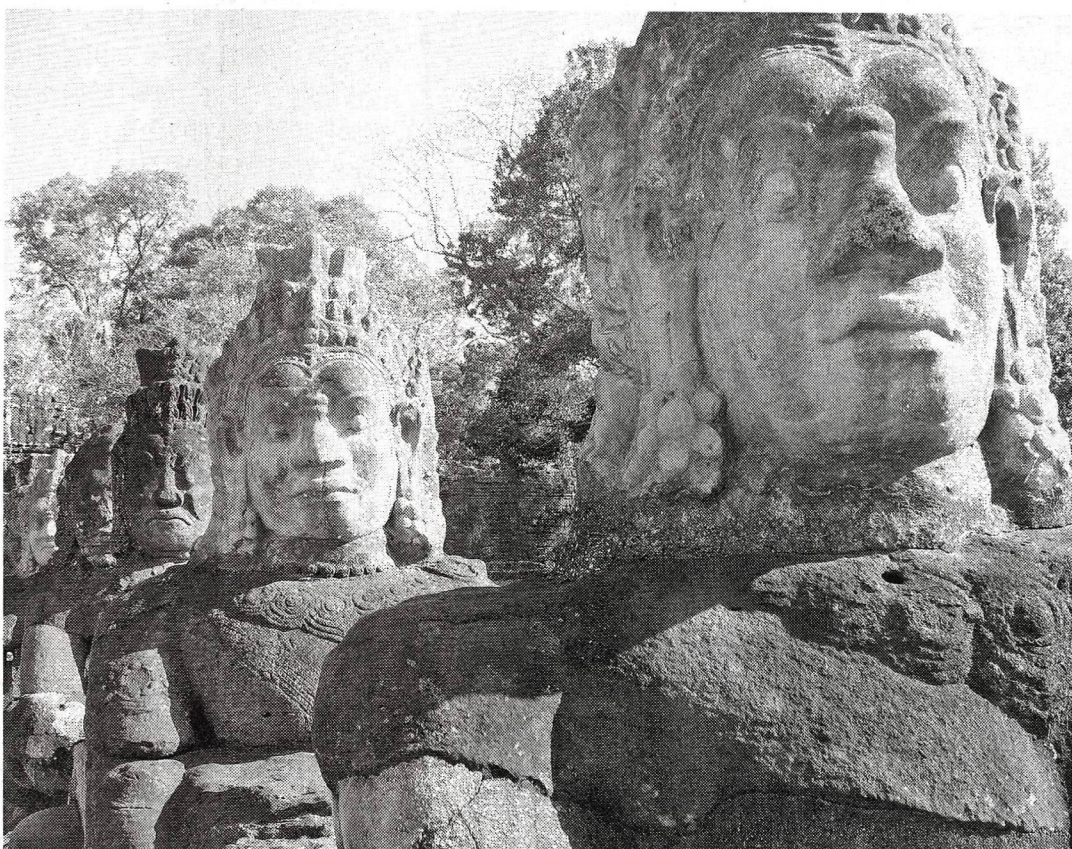
여행사 직원의 말이 생각이 났지만 여전히 의심이 완전히 가시지는 않았다. 여행사 직원 이 한 말과 부당한 상황이 꼭 일치하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여행사 직원의 말에 따르면 우리는 원래 여행 안내원에게 여권과 돈을 맡기게 되어 있었다. 사실은 전 날 밤늦게까지 이야기 하다 새벽 3시가 지나서 잠자리에 누운 데다가 아침 여섯시에 일어나 온종일 강행군을 한 관계로 정신이 맑지는 않아서 여행사 직원의 말도 정확히 기억나지 않았다.

어떻게 해야 될지 쉽게 판단이 서지 않았다. 정식으로 비자신청서를 써서 내자니 혹시라도

꼬투리를 잡아서 몇 시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까 두려웠다. 더구나 우리 일행은 모두 여덟 명이 나 되었으므로 여덟 명 모두가 무사히 통과할 수 있으리라 여겨지지 않았다. 누구 한 사람이라도 꼬투리를 잡힌다면 모두가 공항에서 몇 시간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것이었다. 그렇다고 이민국 관리처럼 생긴 이 자를 믿자니 혹시 여권을 도둑맞거나 아니면 불법행위로 처벌이라도 받게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염려가 들었다. 내가 주저하고 있자니 이 캄보디아인은 계속 손짓, 발짓, 한국어와 영어를 섞어가며 23달러를 내면 바로 출입국 심사대를 통과한다는 것을 내게 납득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었다. 역으로 해석하면 23달러 내지 않으면 몇 시간 기다려야 한다는 협박 같기도 했지만, 입에는 여전히 매우 선한 미소를 짓고 있어서 나를 더욱 혼란스럽게 하였다.

혼자 판단을 내릴 수가 없어서 일행의 살림을 맡고 있는 강 선생에게 의견을 구하였다. 강 선생이 이 캄보디아인의 제안이 여행사 직원한테서 들은 말과 일치한다는 말을 하기에 드디어 민기로 하였다. 그래도 혹시나 하는 생각에 경찰에 적힌 이름을 손바닥에 적고서 여덟 명의 여권과 184달러를 건넸더니 싱글벙글하면서 우리 일행을 인솔하여 출입국 심사대를 통과시켜 주고서는 어디론가 사라졌다.

하지만 우리의 결정이 옳았던 것인지는 끝내 알 수가 없었다. 184달러를 냈지만 우리 일행은 기대했던 만큼 비자를 빨리 받지 못했기 때



23달러를 내면 바로 출입국 심사대를 통과한다

한국 관광객들의 급한 성미가 낳은 결과

앙코르 톨은 옛 크메르 제국의 행정과 종교의 중심지

문이다. 20분이 지나도 우리 일행의 여권을 가지고 사라진 그 캄보디아인은 나타나지 않았다. 어느새 사람들이 3분의 2 이상이 출입국 심사대를 통과했다. 게다가 정식으로 비자를 받는 사람들도 쉽게, 그리고 신속히 심사대를 지나는 것을 보니 한편으로 사기당한 기분이 들고, 또 한편으로는 다시 불안한 생각이 들었다. 조바심이 일어 이민국 관리 한명에게 상황을 설명했더니 나를 다시 출입국 심사대 저편으로 데리고 가서는 조그만 방으로 안내했다.

모든 상황이 이해되었다. 방안에는 세 명의 이민국 관리가 여권을 수북이 쌓아놓고 작업을 하고 있었다. 한창 우리 일행의 비자발급을 처리하고 있는 중이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리와 같은 방식으로 심사대를 미리 통과하고는 비자가 첨부된 여권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었던 것이다. 작업실에서 몇 분을 기다려서 우리 일행의 여권을 모두 받아 챙겼다. 비자 신청서에는 신청자의 여행 목적과 구체적인 행선지를 적게 되어있고, 마지막에 신청자의 서명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 모든 것을 이민국 관리들이 알아서 작성하고 자신들의 서명으로 대신한 다음 비자를 발급한 것이다. 다시 출입국 심사대를 지나서 일행들에게 여권을 나누어주고 공항을 빠져나왔다. 생각할수록 요지경이 아닐 수 없었다. 미국 방문시 경험하는 삼엄하고 긴장된 기운이 감도는 미국의 출입국 심사대와 비교해 보면 도무지 이해하기 힘든 진풍경이었다.

아무리 가난한 나라이지만 출입국 관리소에서 이렇게 어처구니없는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하며 공항을 빠져나왔다. 공항 앞 주차장에서 기다리고 있는 한국인 관광안내원을 만나 우리 일행을 태울 버스에 올랐다. 관광안내원은 우리가 오랜 시간을 지체하지 않고 공항을 빠져 나온 것을 기뻐하였다. 그의 말에 따르면 어떤 경우는 비자 발급받는 데 실제로 몇 시간이 걸린다는 것이다. 출입국 관리들이 고의적으로 지체해서가 아니라, 조그만 공항이어서 관리들이 몇 안 되는데 비행기가 한꺼번에 많은 승객을 내려놓으면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이었다. 관리들이 돈을 받게 된 것 역시 처음부터 부패한 탓은 아니고 이런 상황에 처한 한국 관광객들의 급한 성미가 낳은 결과라고 한다. 기다리는 것을 싫어하는 한국 관광객들이

이민국 관리들에게 돈을 주면서 일을 재촉한 데서 시작되었다는 것이다. 처음에는 1달러였는데 이제는 올라서 3달러가 되었다고 한다.

게다가 기가 막히는 것은 이들 관리 역시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는 접근을 하지 않고 한국관광객들에게만 접근하여 돈을 받고 비자 업무를 대행한다는 사실이었다.

다음날 아침 일찍 우리 일행은 앙코르 유적지를 향했다. 2월은 이곳에서도 일 년 중 가장 기온이 낮은 시기이지만 여전히 한 낮에는 30도 중반을 오르내리기 때문에 아침 일찍부터 나타나고 정오부터 두 세 시간은 가능하면 실내에서 머물도록 해야 한다. 이곳 사람들은 새벽 다섯 시만 되면 거리로 쏟아져 나오기 시작한다. 출근길 러시아워가 우리보다 2시간 가량 빠르다. 6시가 되면 도로가 자전거와 오토바이 출근행렬로 가득하다. 아침을 일찍 시작하

는 이곳 사람들은 더위가 한 창인 점심 식사 후에는 낮잠을 즐긴다. 정규 사업장에는 공식 낮잠 시간이 있다.

흔하들 앙코르 왓으로 알고 있는 시엠 립의 거대한 석조 유적은 앙코르 톨과 앙코르 왓으로 나뉘어져 있다. 앙코르 톨은 크메르어로 “도시”를 의미한다. 톨은 “위대한 도시”라는 뜻이고 의미하고 왓은 “신전”을 의미한다.

앙코르는 캄보디아가 자랑하는 문화유산이다. 캄보디아를 킬링필드의 나라로만 기억하는 사람들에게는 매우 의아하게 느껴졌지만 앙코르는 분명 캄보디아인들이 1000년 전에 자신들의 땅에 만들어 놓은 기념비적 문화유산이다. 캄보디아인들의 문화유산일 뿐 아니라 인류 역사상 가장 빼어난 문화유산 가운데 하나인 데없이 아름답고 웅장한 세계적 문화유산이다.

우리는 일정을 따라 오전에 앙코르 톨을 관람하기로 하였다. 앙코르 톨은 옛 크메르 제국의 행정과 종교의 중심지, 즉 수도로서 이름 그대로 “위대한 도시”이다. 역사가들에 따르면 앙코르 톨은 그 전성기인 14세기에 당시 유럽의 어떤 도시보다도 웅장한 규모의 도시를 이루고 있었으며, 약 100만 명이 살았을 것이라고 추정한다.

이 찬란한 도시는 외곽으로부터의 보호를 위해 가로 세로 각기 약 3.8 Km에 이르는 성곽이 만들어져 있고, 성곽 둘레에는 다시 폭 100m에 이르는 해자가 파져 있다. 성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네 개의 방향에 각기 하나씩 만들어 놓은 석조 진입로를 따라서 해자를 건너 다음 다시 성문을 통과해야 한다. 해자를 그냥 건너다간 해자에 떨어놓은 악어밥이 되고 만다. 터널 형의 성문은 원래 문이 없고, 대신 적이 성 바로 앞까지 오면 터널 형 성문에 코끼리를 몰아넣은 다음 죽여서 막도록 설계되어 있다. 때문에 성문의 크기는 코끼리 한 마리가 빠져 나올 수 있는 정도의 폭과 높이를 하고 있다. 마치 북한이 진격해 올 경우 북한의 전차나 탱크의 서울 진입을 지연시키기 위해 요충지의 도로 위에 콘크리트 구조물을 만들어 놓고, 그 위에 커다란 콘크리트 덩어리를 올려놓고 필요시에 떨어뜨리게 해 놓은 것과 같은

방식이었다.

성내에는 주로 왕과 왕족, 관료, 성직자, 군인들이 살고 일반인들은 성곽 바깥에 산 것으로 추정된다. 궁궐을 비롯하여 이들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던 거주 공간들은 목재로 지어졌는데 지금은 모두 사라졌다. 그러나 건물의 기초를 이루고 있던 돌로 된 토대는 여전히 남아 있어 웅장하고 화려했던 옛 모습을 짐작하게 한다. 목조 건물들이 모두 사라진 성 내 외부에는 도처에 석조건물들만이 허물어진 채 흩어져 있다. 어떤 것들은 완전히 복원되었고, 어떤 것들은 복원 중에 있으며, 어떤 것들은 돌무더기로 남아있다.

지금껏 남아있는 이들 석조건물들은 거의 대부분이 신에게 제사를 지내기 위해 만든 신전들이다. 신전들은 9세기에서 13세기에 걸쳐서 앙코르 제국의 여러 왕들이 지은 것들이다. 왕들은 자기 자신만의 신전을 지은 다음 여기서의 제사 행위를 통해서 자신과 신과의 특별한 관계를 국민들에게 과시하였다. 신전 곳곳에 힌두교 신화의 주인공들이 새겨져 있는 것으로 보아 왕들의 제사 행위는 주로 힌두교의 사고 방식에 기초해서 행해진 것으로 추정된다. 힌두교에서는 제사 의식이 특히 중시된다. 힌두교도들은 제사를 통해서 우주의 질서를 조종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이들 신전을 가운데서 가장 웅장한 것은 위신전들은 모두가 웅장한 규모의 피라미트 형 구조물들이다. 큰 것들은 가로 세로 각기 200m가 넘으며 높이 역시 수십 미터에 이른다. 우주의 질서를 조종하는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는 당연히 웅장한 신전이 필요했을 것이다. 구조물 내부는 수많은 탑들로 채워져 있다. 구조물의 최상층부는 제사를 지내던 곳으로 추정되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다. 제사를 가능한 한 높은 곳에서 지내는 것은 대부분의 종교 의례에서 나타나는 공통된 현상이다. 태양과 달, 밤하늘의 수많은 별들이 지닌 힘과 연결되기 위해서는 최대한 높이 올라가야 하기 때문이다.

대한 도시 앙코르 톨의 정중앙에 자리 잡고 있는 바이온 신전이다. 바이온 신전은 캄보디아 역사상 가장 강력한 통치자로 알려진 자야바르만 7세(재임 1181-1120) 때에 건립되었다. 가로 세로 약 100m, 높이 50m 가량의 3층으로 된 피라미트 구조를 가지고 있는 이 거대한 신전은 매우 장엄한 모습을 하고 있다. 신전에는 50개의 거대한 탑이 세워져 있으며 각각의 탑에는 사면으로 4개 씩 총 200개의 미소짓는 얼굴이 가로 세로 약 1.5m 크기로 조각되어 있다. 이렇게 많은 얼굴을 새겨 놓은 것은 이 얼굴의 주인공은 전지전능하여서 어디고 머물지



않는 곳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다. 앙코르의 미소로 알려진 이 얼굴들은 여러 면에서 양면적인 아름다움을 연출하고 있다. 남성적이면서도 여성적이며, 투박하면서도 섬세하고, 장엄하면서도 우아한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다. 네모진 얼굴모양, 풍툭한 코, 커다란 입은 투박하고 장엄한 남성미를 드러내고, 둥근 눈과 관능적인 느낌마저 자아내는 도톰한 입술과 거기서 나오는 미소, 전체적으로 부드러운 윤곽의 처리는 섬세하고 우아한 여성미를 자아내고 있다. (다음호에 계속)

총지법문

<기획연재>

천수천안관자재보살광대원만무에대비심대다라니경

<천수경>

종조 원정 대성사께서는 이 땅에 다시 밀교를 꽃 피우게 하셨습니다. 해방 이후 한국밀교의 중흥과 함께 초창기 진각종의 기틀을 다지셨고, 이후에는 의례(儀軌)와 수법(修法)을 정립한 정통밀교종인 총지종을 창종하셨습니다. 종조님의 숭고하고 생전의 가르침을 유고(遺稿)를 통해 다시 만나 보시기 바랍니다.

이 원고는 진각종 재직 당시 총인으로 계시면서 쓰신 내용이며, 「종조기념관」에 전시되어 있는 원고 가운데 일부입니다. 종조님의 가르침을 되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편집자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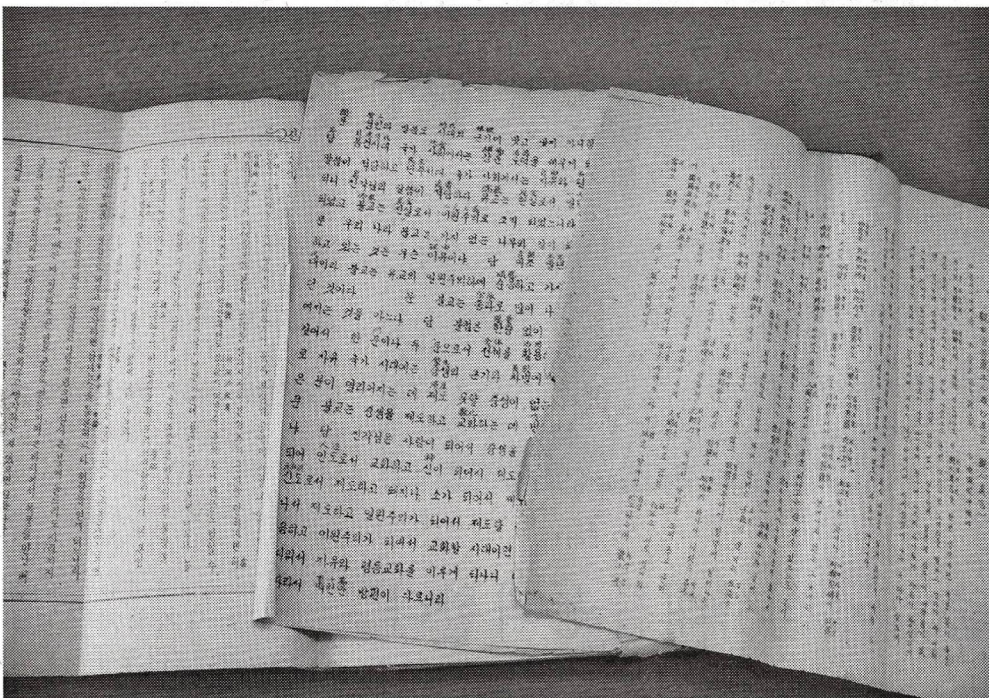
천수천안관자재보살광대원만무에대비심대다라니경, 천수다라니, 관세음보살의 원력과 위신력, 그리고 중생이 어떻게 관세음보살을 신앙하며 중생의 입장에서 어떠한 발원을 해야 하는가에 대하여 말씀. 천수경 다라니는 삼국 고려 조선시대를 거쳐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관음신앙의 근간이 되어왔으며, 현행본 천수경은 전해오면서 여러 차례 첨삭 되고 다듬어져 독특한 한국의 천수경으로 완성을 이뤄 온 것으로 본다. 천수경은 아득한 옛날 천광왕정주여래(天光王靜主如來) 부처님이 처음 설하신 경. 관세음보살께서 모든 중생을 안락케 하고 병을 없애주며, 중생의 수명과 풍요로움을 얻게하고, 일체 악업중과 모든 장난을 여의며, 일체 청정한 법과 모든 공덕을 증장시키고, 일체 모든 일을 성취, 두려움을 멀리 여의고, 구하는 바를 만족시키고자 이 경을 설하겠다고 부처님께 권청/다라니를 수지하면 일체업장이 모두 소멸, 일체의 구신이 철폐하지 못하게 된다. 또한 널리 일체중생을 이롭게 하고 친인, 아수리를 안락케 하고자,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부처님이 이 법문으로 인해 정등정각을 얻는다. 이 경은 바로 이러한 불보살의 중생구제 서원을 다라니를 통해 구현한 것. 82구의 천수다라니를 외우면 시방의 불보살이 와서 증명하여 온갖 죄업을 소멸하게 된다. 본래 “신묘장구 대다라니”만 외우면 것을 경문의 좋은 글과 조사 스님들의 훌륭한 글을 넣어서 참회하고 발심하고 불보살께 귀의하며 보다 빠른 성취를 위하여 우리나라에서는 전승(前誦: 정구업전언부터 나쁜사(아미타불까지)와 후승(後誦: 사방천부터 나쁜사(아미타불까지)를 넣어서 외우고 있다.

본래 명칭은『천수천안관자재보살광대원만무에대비심대다라니경』이며 달리『천수다라니』라고도 한다. 법본(梵本)원전은 서인도의 가법달마(伽法達摩)스님이 당(唐)나라 때에 중국에 건너와서 번역한 한역본(漢譯本:八十二句)과 당나라 불공(不空)스님의 한역본(九十四句), 그리고 당나라 지통(智通)스님의 한역본(八十四句)과 당나라 금강지(金剛智)스님의 한역본(百十三句)등 열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는 어떤 역본이 우리나라로 먼저 들어온 것인지, 또는 전래된 연대 등은 정확하게 알 길이 없다.

천수천안관자재보살 광대원만무에대비심대다라니 계청(千手千眼觀自在菩薩廣大圓滿無碍大悲心陀羅尼 啓請 : 천수천안관세음보살님의 광대하고 원만한신 자비심의 다라니를 청합니다)

계수관음대비주(稽首觀音大悲咒) 관음보살 대비주와 거룩하신 성상앞에 원력홍심상호신(願力弘深相好身) 일심으로 머리를 합장 발원하옵나니

천비장엄보호지(千臂莊嚴普護持) 일천팔로 장엄하되 온갖중생 거두시고 천안광명변관조(千眼光明變觀照) 일천눈의 광명으로 온세상을 살피시어 진실어중선말어(眞實語中宣密語) 참된말씀 배부시되 비밀한듯 보이시고 무위심내기비심(無爲心內起悲心) 본별없는 마음속에 중생사랑 열오소서 속령만족제희구(速令滿足諸希求) 중생들의 온갖소원 하루빨리 이루옵고 영사멸제제죄업(永使滅除諸罪業) 중생들의 모든죄업 청정하게 씻어주고 용천중생동자호(龍天衆聖同慈護) 천룡팔부 모든성현 사랑하여 주옵소서 백전삼매도훈수(百三昧頓修) 한량없는 온갖삼매 한순간에 닦아지며 수지심시광명당(受持身是光明堂) 받아지닌 이내몸이 밝고빛난 것발이요, 수지심시신통장(受持身是神通藏) 열없는 그마음이 신통력의 근원이라 세척진로원제해(洗滌塵勞願濟海) 온갖번뇌 씻어내고 고통바다 아서건너 초증보리방편문(超證菩提方便門) 방편문을 깨쳐어서 뛰어나게 하옵소서 아금침송서귀의(我今稱誦諸經依) 지금이몸 열불하고 부처님께 맹세하니 소원종심일원만(所願從心悉圓滿) 원하는 일 마음대로 원만성취 하여지다 나무대비관세음(南無大悲觀世音) 자비하신 관세음께 지성귀의 하옵나니 원아속지일체법(願我速知一切法) 제가이제 세상일을 속히알게 하옵소서 원아족득지혜안(願我早得智慧眼) 제가 이제 지혜의는 빨리알게 하옵소서 원아속도일체중(願我速受一切衆) 제가 이제 모든중생 제도하게 하옵소서 원아족득선방편(願我早得善方便) 제가 이제 착한 방편 속히알게 하옵소서



원아속승반아선(願我速乘般若船) 제가 이제 반아선을 빨리타게 하옵소서 원아족득월고해(願我早得越苦海) 제가 이제 고통바다 속히넘게 하옵소서 원아속득계정도(願我速得戒定道) 제가 이제 정정계를 빨리알게 하옵나니 원아족등열반산(願我早登涅槃山) 제가이제 열반세계 속히알게 하옵소서 원아속회무위사(願我速會無爲舍) 제가 이제 미묘한법 빨리알게 하옵소서 원아족동법성신(願我早同法性身) 제가 이제 진리의몸 속히알게 하옵소서 아약항도산(我若向刀山) 내가 만약 칼산가면, 도산자최절(刀山自摧折) 칼산들이 무너지고 아약항화탕(我若向火湯) 화탕지옥 내가가면, 화탕자소멸(火湯自消滅) 끓는 물이 사라지며 아약항지옥(我若向地獄) 내가만약 지옥가면, 지옥자고갈(地獄自枯竭) 지옥들이 없어지고 아약항아귀(我若向我羅) 아귀세계 내가가면, 아귀자포만(我歸自飽滿) 배고픔이 없어지고 아약항수리(我若向修羅) 수리앞에 나서면, 악심자조복(惡心自調伏) 악한 마음 절로되고 아약항축생(我若向畜生) 축생들을 대하며는, 자득대지혜(自得大智慧) 큰지혜를 모두얻게 하옵소서 나무 아미타여래(南無 阿彌陀如來) 아미타여래께 귀의합니다 나무 관세음보살 마하살(南無 觀世音菩薩 摩訶薩) 관세음보살마하살께 귀의합니다 나무 지대마니보살 마하살(南無 持摩尼寶菩薩 摩訶薩) 지대마니보살마하살께 귀의합니다

생활속 밀교

▶종조님께서 밀교의식(密敎儀式)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밀교란 의식(儀式)을 주로 한다. 의식이란 특정한 시기에 다른 질서가 지배하는 그것이 의식(儀式)이요 제전(祭典)이다. 또 특정한 장소가 일반의 장소와 구별되는 것도 종교의 특색이다. 또 용구(用具), 언어(言語), 행동(行動) 등이 구별되어 일상생활과 달라서 시간, 공간, 물체, 동작, 언어 등이 성스럽다고 할 수 있다. 이에 상대하여 일상생활을 세속적이라고 하고 순불교적(純佛敎的)인 생활을 출세간적(出世間的)이라고 한다. 종교는 어떠한 것을 막론하고 비밀적인 부분이 있다. 수행의 깊이에 따라 그 비밀을 수습(修習), 또는 체득(體得)하는 것이 본령(本領)으로 되어 있다. 여타의 종교보다 불교에서 비법(秘法)이 많고 그 대표적 인 것이 밀교라고 하겠 다. 밀교의 본질을 요약하면 첫째, 심비성(深秘性)을 들 수 있다. 언어나 논리로서는 삼라만상 우주 전체의 모습의 진실을 표현하기 매우 어렵다. 실제 진실은 그러한 실재를 초월한 곳에 있다. 그러므로 밀교의 본질의 제일은 심비성(深秘性)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심비한 것이 그대로 공개되지 않고 방치된다면 그것은 '심비(深秘)', '밀(密)'이라 할 수 있어도 '교(敎)'라고 할 수 없다. 여래의 자내증(自內證), 그 심비한 것을 표현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한다면 일상적, 논리적, 공개적일 수는 없다. 일상적, 논리적, 공개적이 아닌 표현수단이 있다고 하면 무언(無言)의 표현, 또는 상징적 방법 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무언'의 표현'은 표현이 아니다. 대부분의 대승불교 경전은 이것으로서

그 진실성을 표현하려고 하였다. 밀교의 또하나의 본질과 특징은 의례(儀禮)에 있다. 언어나 표현으로서 나타나는 불(佛)의 세계를 관망하는 것만으로는 인간구제에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다. 표현된 상상을 해독하여 역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자신에게 재기(再起)시키는 것, 환안하면 상징으로 표현된 불(佛)의 체험을 상징을 통하여 행자가 추체험(追體驗)하는 것이다. 이 해독의 규칙이 교학적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정리되어 있다. 이것이 밀교 실천규정의 의례이며 구전(口傳)과 더불어 방대한 내용으로 되어 있다.▶

종조님께서 밀교에 대한 본질, 특징을 이와같이 설교하셨습니다. 우리가 행하고 있는 종단의 수법(修法)과 의례(儀軌)는 밀교의 상징성과 심비성에 입각하여 갖추어진 의례요 의식입니다. 밀교는 그

밀교의 의례

수법이 엄격하고 체계화 되어 있어 의식(儀式), 의례(儀禮)라는 말로 표현되기 보다는 '의례(儀軌)'라는 말로 곧잘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 수법의 체계와 규칙이 엄격하고 한 점의 빈틈이 없이 행해지므로 '의례(儀軌)'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단의 삼밀수행을 일러서 '삼밀의례'라고도 합니다. 엄격한 규칙과 체계 속에서 행하기 때문에 삼밀의례라 하는 것입니다. 입으로 진언을 외우며, 손으로 결인을 행하고, 본존을 관하면서 염송을 행하되 반드시 정해진 횟수와 절차에 따라 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해진 규칙 속에서 행해지므로 이를 달리 '의식(儀則)'이란 말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불단으로 나와서 향을 피우고 회사를 행하며, 자리에 앉아 금강정좌(金剛定座)로써 금강합장(金剛合掌)과 함께 참회서원, 오대서원으로 시작되는 우리 종단의 삼밀의례는 엄격한 규칙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아무 생각없이 형식적으로 행해서는 안 됩니다. 본인 스스로 몸과 마음을 가다듬고 염송삼매에 들어가도록 해야합니다. 의식을 염두에 두고 정신을 집중하여 차근차근 순서에 따라 혼신을 다하여 행하여야 합니다. 자신을 의식에 몰입하고 의칙과 자신이 하나가 되었을때 진정한 삼밀수행이요 염송의례가 되는 것입니다.

그 동안 습관적으로 아무 생각 없이 염송을 하였는지도 모르니다. 그러나 5월 월초불공 때에는 의례를 지키고, 의례에 따라 철저하게 자신을 몰입시키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합시다. '남'자관을 행할 때는 눈을 자국이 감고 천천히 머릿속에 '남'자를 그려봅시다. '남'자를 가지는 본래의 뜻, 즉 '발끝에서 머리끝까지 나의 번뇌망상을 하나도 남김없이 모두 불태워 소진시킨다'는 마음으로 관하여 보는 것입니다. 긴 호흡과 함께, 정갈 내 몸이 가벼워지고 있다는 느낌을 가져보도록 합시다. 몸의 안과 밖이 깨끗해진다는 생각을 갖도록 합시다.

의례는 펜서리 불편함과 까다로움을 주기 위해 일부러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닙니다. 의례는 나를 제어하고 조복하는 마음공부의 일환이기도 합니다. 그냥 지나가면 공염불이요 집중하여 놓치지 않으면 염송삼매가 되는 것입니다. 한 동작 한 동작을 행할 때마다 법열(法悅)이 가득해지는 불공이기를 서원합니다.

《법정//통리원 사무국장/법장원 연구원》

진언수행의 길

진언을 지송하는 방법으로 『현밀원통성불심요집』에서는 다음과 같이 다섯가지 지송법을 설하고 있다. 첫째, 유가지송이다. 마음에 글자를 품는 포자만을 생각한다. 이른바 자신의 마음이 둥근 원륜처럼 생각하고, 몸과 마음의 내외가 아주 청정하고 분별함을 관한다. 둘째, 출입식지송이다. 호흡의 날숨과 들숨 사이에 진언법자를 생각한다. 호흡의 날숨에 '출(出)'자를 호흡의 들숨에 '입(入)'자를 생각하여 글자마다 확연하여 마치 빛나는 구슬을 꿰는 것처럼 생각의 중단을 없게 한다. 셋째, 금강지송이다. 입술과 치아는 움직이지 말고 혀는 천장에 닿

지 않게 한다. 다만 입안에서 미동은 해도 된다. 넷째, 미성지송이다. 자신의 귀로 진언의 소리를 듣는다. 그러나 들어지지도 글자도 않게 한 글자 한 글자를 반드시 분명하게 불러야 한다. 다섯째, 고성지송이다. 진언의 소리를 타인이 듣고 죄가 멀하게 한다.

진언지송법(염송법)

여기에 두 가지 지송이 있다. 무수지송은 염주로 숫자 세는 것을 정하지 않고 지송하는 법으로 항상 진언을 꿰어짐 없이 지송하는 것이요, 유수지송은 매일 지송할 숫자를 정해 놓고 하는 방법으로 그 정해진 수가 모자라서는 아니 된다. 밀교에서는 이 진언염송법을 달

리 사종염송, 오종염송으로 분류하기도 한다. 사종염송은 소리를 내어서 염송하는 음성염송, 입을 다물고 혀만 움직여 묵송하는 금강염송, 정신을 통일하여 진언의 문자를 한 곳에 집중하여 관하는 삼마지염송, 정신을 통일한 마음으로 문자의 실상을 관하는 진실염송의 네가지 염송이다. 오종염송은 염송하는 소리가 자기 귀에만 들리게 하는 연화염송, 입을 다물고 혀만 움직여 묵송하는 금강염송, 정신을 통일하여 진언의 문자를 한 곳에 집중하여 관하는 삼마지염송, 마음에 연꽃위에 백패를 관상하고 이에 따라 묘한 음성이 나올 것을 염상하여 지송하는 성생염송, 입으로 광명이 나오는 것을 염상하여 지송하는 광명염송의 다섯가지 염송이다.

불교 총지중 사회복지 재단은 부처님의 자비로 따뜻한 세상을 만들어 갑니다

설립취지

부처님의 자비사상을 사회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각종 사회복지 사업을 펼치고 이를 통해 소외된 계층과 어려운 이웃에게 '니들의 공덕'을 실천하여 인정한 사회와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하고자 설립되었습니다.

주요사업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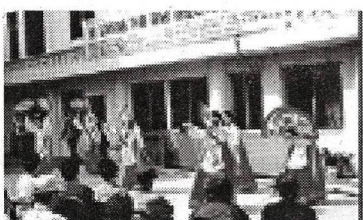
청소년복지사업



- 건강한 청소년 육성사업
- 청소년 문제 연구 및 상담사업
- 청소년 문화교실 운영
- 청소년 건강 프로그램 개발
- 청소년 캠프

지역복지사업

- 지역의 복지향상을 도모하는 사업
- 지역내 소년·소녀 가장 후원 결연사업
- 지역내 독거 노인 후원 결연사업
- 생활보호 대상자 후원 사업



자원봉사 및 후원회 사업



- 자원봉사자 상담 및 교육
- 자원봉사 지원 및 운영
- 후원회 개발 및 관리
- 자원봉사 교실 운영

노인 휴양시설 건립 추진

- 아름다운 노후생활
- 안정되고 체계적인 노후보장
- 남골당 건립 추진

후원회 가입안내.....

불교 총지중 사회복지재단 후원회는 부처님의 참사랑을 주위의 어려운 이웃들과 더불어 나누고자 하는 분들의 모임입니다. 여러분들의 정성은 재단의 사회복지 사업에 소중한 기여가 됩니다.



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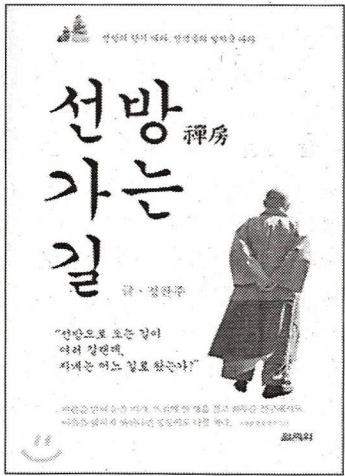
- 일반회원 - 월 5천원(1구좌) 이상
- 찬조회원 - 일정금액 후원
- 단체회원 - 단체명의로 월 5만원 이상
- 특별회원 - 50만원 이상 후원

후원금 납입방법

1. 단체일 경우 회장님이나 담당자를 통하여 납부 하시면 됩니다.
2. 후원금 납부는 지로 또는 아래 금융기관에 자동이체를 신청 하시면 됩니다.
3. 지로 용지는 후원자님 앞으로 발송해 드립니다.
 - ☞ 지로번호 : 7668610
 - ☞ 우리은행 : 122-177171-13-104
 - ☞ 예 금 주 : 불교총지중사회복지재단

이달의 추천도서

선방가는 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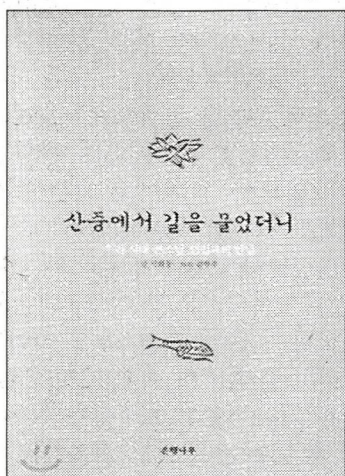
정찬주 저 / 열림원 / 정가 11,000원
서울을 떠나고 나서부터 나는 깊은 산중의 선방을 찾아다니기 시작했다. 오대산의 상원사 청량선원에도 갔고, 제주도 서귀포의 남국선원에도 갔다. 허상의

나를 버리기 위한 나만의 떠나기였다. 좀 더 구체적으로 고백하자면 선방이라는 금쪽의 공간에 대한 호기심보다는 그곳에서 자신의 전 인생을 끌어내고 수행하는 선지식을 만나 대화하면서 '나는 누구인가' '삶이란 무엇인가' '무엇이 잘 사는 길인가' 등에 대한 해답을 구하고 싶어서였다. --- 본문 중에서

여행의 계절에서 독서의 계절로 넘어가는 중간 길목에서 독자들을 찾아오는 『선방 가는 길』은 선방에서 인생의 길을 찾는 나그네의 여정을 기록하는 산문집이다. 지금까지도 수많은 독자들에게 사랑받고 있는 스테디 셀러 『암자로 가는 길』의 저자이기도 한 정찬주는, 선방과 암자를 돌아다니며 집필한 깊이 있는 명상적 산문으로 잘 알려진 작가다.

이 책은 크게 두 갈래로 나뉘는 독특한 구성을 취하고 있다. 한 길은 전국의 선방을 순례하는 동안 치열한 구도 현장에서 지혜를 깨닫고 진정한 나를 탐구하는 일종의 공간 여행이다. 또 다른 길은 선의 일류를 찾아, 먼 과거로부터의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든든한 정신적 지주로 살아있는 선객들의 계보를 소설적인 구성으로 따라가는 일종의 시간 여행이다. 이 시간 여행은 선의 초조 달마에서부터 선의 인간화를 외친 임제에 이르기까지 스승과 제자 간의 계보를 선의 역사로서 흥미롭게 기술한다. 선의 정신과 진실한 나를 향해 가는 이 여정은 삶의 울퉁한 행로로 바로 이어지며, 수행과 일상이 하나된 삶이아말로 진정한 구도의 실천임을 깨닫게 해준다.

산중에서 길을 물었더니



서화중 저/김형주 사진 / 은행나무 / 정가 15,000원
현재 불교계나 학술계에서 명망을 떨치고 있는 선지식 33인의 가르침과 삶을 한 곳에 모았다. 경남 함양군 황대마을에 선원을 세워 대중들을 지도하고

있는 성수스님에서부터 현 조계종 종정인 법전스님, 전 종정 서암스님, 그리고 살아 있는 3대 부처로 불리는 송산스님, 계룡산 국제선원 무상사에서 외국인 납자들을 지도하는 벽안(碧眼)의 미국인 대봉스님까지, 그야말로 이름만 대도 알 수 있는 큰스님들의 삶이 빼곡하다.

스님들의 이력이나 면모도 다양한데, 선승도 있고 학승도 있으며, 경성(見性)을 했다는 분도 있고, 선에 대해서도 조사선, 화두선만이 깨달음에 이를 수 있는 길이라는 분이 있는가 하면 염불이나 주력, 간경, 관법 등 다른 방편도 충분히 유효한 길이라는 분도 적지 않다. 그 이견과 차이를 넘어서서 이 책은, 선지식들이 치열한 구도행과 실천적 삶을 통해 그들이 체득한 영묘한 지혜를 보여준다.

간간히 섞여 있는 스님들의 젊은 시절 이야기도 재미있다. 겨울철 한밤중에 어른들 몰래 밤참을 해 먹던 추억, 행자 시절 공양간에서 아궁이에 불을 때면서 부지깽이로 박자를 맞추며 경전을 외우던 시절의 기억도 아련하다. 책에 실린 스님들의 생생한 사진도 읽는 맛을 더한다.

나는 그곳에서 사랑을 배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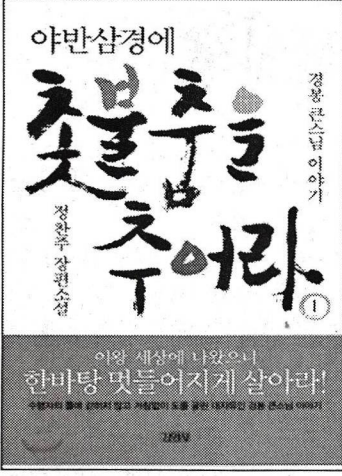
정희재 저 / 샘터 / 정가 12,000원
그 푸르딩딩하던 새벽에 떠나던 여행이 처음부터 순례가 된 것은 아니었다. 처음의 두려움과 달리 그 여행은 축복이었다. 인도로 망명 온 티베트 사람들을 알고, 그들과 함께 보낸 시간은 예전에 없었던 '눈물'의 시간이었다. 자비에 대해, 세상 모든 이가 내 어머니라는 가르침에 대해, 그들은 한 번도 입을 열어 가르친 적이 없었다. 그들은 삶으로 그 믿음을 보여주었다. --- 본문 중에서

저자는 티베트 친구들이 들려준 이 생사의 여정에 경의를 표하고, 그들의 고통에 함께 동참한다는 생각에서 위험천만한 티베트 여행을 시도했다. 편안하고 안락한 길을 택하지 않고 티베트 친구들의 마음을 어깨에 얹은 채 떠난 티베트와 카일라스 여행은 그래서 단순한 여행이 아니라 '나 자신'과 '삶의 행복'을 찾아 떠나는 특별한 순례가 되었다.

광활한 서부 티베트의 오지를 배경으로 마치 중국 공안에 쫓기는 티베트 망명자처럼 숨어서 여행하며 바라본 티베트의 현실과 인생에 대한 통찰은 그 자체로 스릴 넘치는 한 편의 드라마이다.

이 책은 티베트라는 독특한 렌즈로 들여다본 삶의 철학서이다. 때로는 가슴 뭉클한 사연이, 때로는 시원한 유머가 저자 특유의 아름답고 간결한 문장에 담겨 읽는 재미를 더해 준다.

야반삼경에 촛불춤을 추어라 1.2:경봉 큰스님 이야기



정찬주 저 / 김영사 / 정가 9,500원
한국 근현대 불교사에 큰 획을 그었던 큰스님이자 당대의 선지식 경봉 스님의 일대기를 담은 장편소설. 20여 년 동안 명상적 산문과 불교적 사유의 소설을 꾸준히 발표해온 작가 정찬주가 5년에 걸친 취재와 자료 수집, 집필 과정을 거쳐 완성한 작품으로 경봉 스님의 생애와 사상을 본격적으로 담아내었다. 『야반삼경에 촛불 춤을 추어라』는 불교와 경봉 스님에 대한 제반 지식은 물론이고, 선(禪)이 무엇인지, 멋들어지게 사는 삶이 무엇인지, 인생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는 구도소설이다.

1892년 경남 밀양에서 태어난 경봉 스님은 사랑하는 어머니를 여의고 삶과 죽음에 의문을 품고 16살에 출가했다. 출가 전 이미 한문에 조예가 깊었고, 출가 뒤 강원까지 마친 경봉은 스승 성해 스님의 신임을 받아 행정 업무를 맡게 되었다. 그러나 어느 날 『화엄경』에서 '종일토록 남의 보배를 세어도 반 톨어치의 이익도 없다(終日數他寶自無半錢分)'는 구절을 읽고 크게 발심하였다. 남의 글이나 읽는 서생살이를 치우고 스스로 구도의 참맛을 보고 싶었다. 23살이던 1915년 통도사를 나온 그는 가야산 해인사 선방으로 찾아들었다.

대도(大道)를 성취한 경봉 스님은 통도사 주지 등을 역임하고, 1953년 62세에 극락호국선원 조실로 추대되어 전국에서 찾아오는 선승들을 지도하며 선종을 크게 떨쳤다. 경봉 스님은 언제나 온화하고 자상했으며, 청렴하고 겸손한 생활로 일관해, 열려진 방문에는 언제나 구도자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 82세 때부터는 아예 일요일에 정기법회를 열었고, 90을 넘어 부촉을 받으면서도 법상에 오르는 일을 빼놓지 않았다.

법문을 듣는 청법자는 언제나 1천 명을 밀도는 일이 없었다. 경봉 스님은 법문이나 계승을 내림에 있어 언제나 '자기 목소리'를 냈다. 대다수의 선사들이 중국의 조사어록이나 염송 등에서 차용해 설하는 것이 관례화되어 있던 현실에서 선사 자신의 안목으로 자기 목소리를 내는 선구자적 스승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스님의 가풍은 참선과 불학, 염불, 기도, 다도 등 불가의 모든 방편이 한데 어우러진 참으로 깊고도 넓은 '화엄의 바다'였다. 스님은 중생들이 힘든 삶을 고백하면 "이왕 사바세계에 왔으니 근심걱정 놓아버리고 한바탕 멋들어지게 살라"고 하였고, 수좌들이 공부 안 된다고 물어 오면 당신의 수행담을 들려주시며 "야반삼경에 촛불 춤을 보라"고 말했다. 세수 91세 되던 1982년 7월 17일, 시자 명정 스님이 "스님, 가시면 보고 싶습니다. 어떤 것이 스님의 참모습입니까?" 하고 묻자 "야반삼경에 대문 빗장을 만져보라"는

임종계를 남기고 대문의 빗장을 잠그듯 열반에 드셨다.

이달의 생활요가



나비자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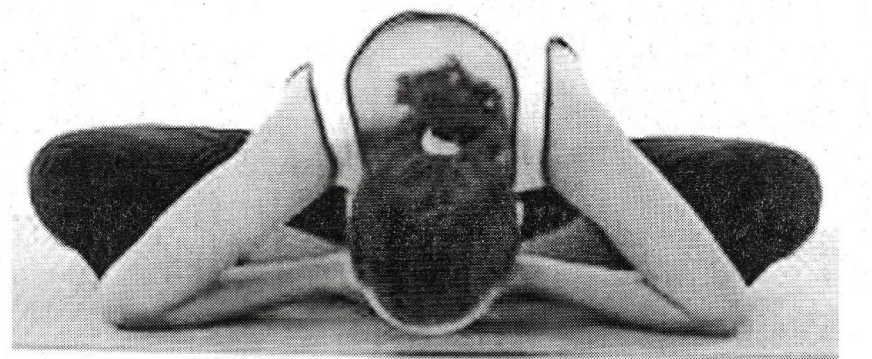


따라하기

- 1) 가슴과 허리를 반드시 펴고 앉는다.
- 2) 양 쪽 무릎을 접어서 발 뒤꿈치를 항문안쪽으로 바짝 잡아 붙이고 두 무릎이 수평이 되도록 한다.
- 3) 양 손을 꼭지껴 발등을 감싸고, 아랫배를 내밀며 가슴은 쭉~편다.
- 4) 이 자세를 유지하는 동안 숨 마시고 팔약근(항문)쪼이고, 내쉬며 이완을 10회 정도한다.
- 이때 시선은 코끝을 향하고, 의식은 항문에 집중한다.
- 5) 다시 숨을 들이 쉬고 내쉬면서 천천히 이마가 바닥에 닿도록 그대로 상체를 숙여 1분이상 자세를 유지한다.
- 6) 들이 쉬면서 상체를 일으키고 충분히 호흡을 하면서 이완한 후에 3. 4회 반복한다.

척추를 바르게 교정하며, 하복부에 기운을 모아주고, 하체의 긴장감을 해소하고 자율신경을 안정시킨다.

- 1) 앉은 상태에서 양 무릎을 구부려서 가슴 앞쪽으로 모으고 양손으로 발끝을 감싼다.
- 2) 숨을 들이쉬면서 무릎을 서서히 펴서 양다리를 들어준다.
- 3) 그대로 깊은 복식호흡을 하면서 참는다. 시선은 한 곳을 응시한다. 약 30초 정도 멈춘 상태로 유지한다. 약 3회 반복한다.
- 4) 내쉬면서 자세를 풀어준다.



건강효과

이 자세는 비뇨기계 질환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효과적이다. 골반, 복부, 등은 혈액의 충분한 공급으로 자극을 받게 된다. 이것은 신장, 전립선, 방광을 건강한 상태로 유지, 회복시켜 준다. 인도의 구두 수선공에게는 비 교기계 질병이 잘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 이유는 이 자세로 앉아 일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 자세는 좌골신경통을 치료, 예방해주고 탈장 및 치질에도 효과적이며, 규칙적인 수행은 고환의 통증까지 해소시켜 준다.

이 자세는 여성들에게는 하나의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다. 불규칙한 생리주기를 치료해주고, 난소의 기능을 정상화 시킨다. 자세를 유지하고 있는 동안은 마음을 안정시키고, 앉은 자세를 교정하며, 특히 임신부에게는 순산에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정맥의 흐름을 활발하게 해준다. 여성들은 이 체위법으로 팔약근운동을 자주하면 생리계통에 좋고 남성들도 정기가 살아나고, 항문에서부터 생명에너지가 왕성하게 활동하도록 도와준다.

그 외에 좌골신경통, 요통, 무릎의 관절염에 좋고, 소화불량에도 효과적이다. 특히 여성들의 월경불순, 하복부 냉증, 요실금에 아주 좋을 뿐만 아니라 허벅지의 군살까지 제거해주는 미용효과까지 있다.

염주를 수지하여 소원성취, 즉신성불 이루소서!

염주속에 내마음과 불보살의 세계가 있습니다.

"염주는 모두가 있어 부처님이나 보살을 표시하여 모시게 되는 것이니 염주를 가지고 염불을 하게 되면 우리 중생이 지나는 과거, 현재, 미래의 고통과 슬픔인 모든 번뇌를 소멸하고 안락을 얻게 되는 천국이 되는 공덕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염불을 하는데 수를 헤아리는 수주로서만 아니라, 불을 모시는 데 알뜰이 되도록 도와주는 법구로서, 나아가 불보살을 상징하는 공덕주로서 몸에 지니는 것만으로도 정신이 안정되어 모든 잡귀들이 보기만 하여도 도망쳐서 화를 뿜고 복을 부르는 신비한 영험까지 지니게 되며, 악한 자는 저절로 착한 마음을 지니게 되는 공덕을 나게 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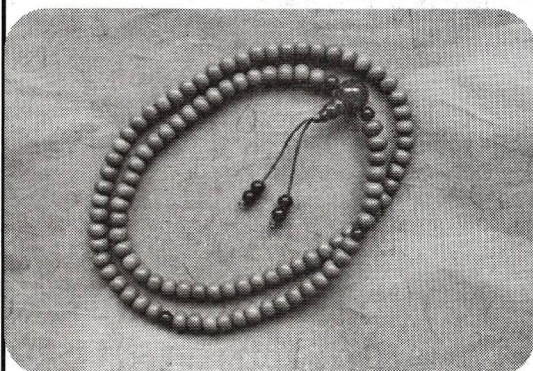
천은사 염주

알이 둥글고 고를 뿐만 아니라 단단하고 보기 좋아 불자라면 누구나 한 벌쯤은 갖고 싶어 하지요. 손때가 묻을수록 반질반질 윤이 나면서 은은한 빛을 발하는 보리수 염주는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으신 보리수 열매로 만든다는 데에 더욱 큰 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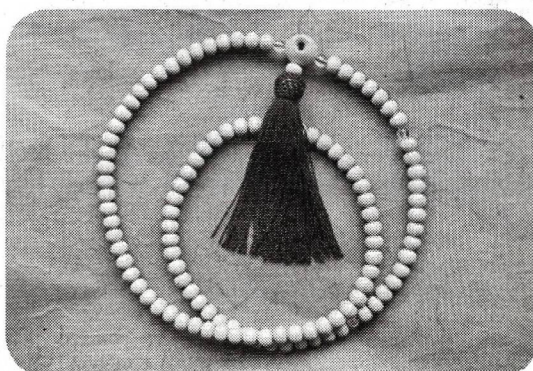
천축 염주

대나무는 일생에 단 한번 꽃을 피우고 그리고 사라집니다. 그래서인지 더 귀하고 소중하게 여겨집니다. 대나무 열매는 죽실, 죽미, 야맥, 죽실만, 연실 등으로 부르며 모양이 밀 보리를 닮았습니다. 중국의 고전 "장자"에는 봉황에 대해 "오동이 아니면 머물지 않고, 대나무 열매가 아니면 먹지 않는다"고 하여 대나무 열매는 봉황이 먹는 상스러운 열매로 알려져 있어 그 열매를 맺게 하

※ 구입처 : 서울시 강남구 역삼2동 776-2 ☎ 02-552-1080 · 통리원 사회부



진보리수 108염주 ₩40,000



천은사 보리수 108염주 ₩35,000



천은사 54과 염주 ₩20,000



보리수 27과 단주 ₩15,000



천축 54과 염주 ₩20,000



‘세계평화기원법회’ 아름다운 회향

‘푸토우산 평화선언문’ 만장일치 통과



◇불교의 역할과 대안을 모색한 '제 1차 세계불교포럼'이 중국 저장성 푸토우산(보타산)에서 '세계평화기원법회' 폐막식을 봉행하고 있다.

세계평화를 위한 불교의 역할과 대안을 제시했던 제 1차 세계불교포럼이 막을 내렸다.

세계 불교도들이 한 자리에 모여 세계인류평화를 위한 불교의 시대, 사회적 역할과 대안을 모색한 '제 1차 세계불교포럼'이 4월 16일 오전 9시 중국 저장성 푸토우산(보타산)에서 '세계평화기원법회'를 끝으로 막을 내렸다.

나흘간의 포럼을 마무리한 이날 세계평화기원법회 및 폐막식에서는 포럼개최 기념 불골사리 친견식, 세계평화기원문 낭독, 푸토우산 선언문 낭독 등으로 진행됐다.

특히 이번 포럼 개최를 기념해 열린 '불골사리 친견식'은 중국불교협회 저장성 푸토우산에서 세계불교초포럼 전등법회

및 폐막식이 개최된 것을 기념하고자 푸토우산 불교연합회에 기증한 것. 불골사리는 앞으로 푸토우산에 영구 보존된다.

세계평화기원법회는 세계 각국에서 참여한 스님 중 108분의 방장급 스님들을 해수관세음보살 아래 마련된 단상에 모신 가운데 봉행됐다. 기원법회에서는 108명의 대표 스님과 1천여 명의 사부대중들이 다 함께 합장반배하여 세계평화기원문을 낭독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열린 제 1차 세계불교포럼 폐막식에서 저장성 부성장인 중산 씨는 "세계불교포럼을 통해 불교가 다시 한번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기에 더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며 "모든 불자들이 포럼을 통해 선언된 내용들을 직접 실천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불교협회 이청 회장 스님은 "가정화목, 사회평화, 세계화합이 이번 포럼의 목적이자 취지"라며 "목적달성을 위해 마음으로부터 시작하는 보살행을 적극적으로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운산 태고종 총무원장 스님은 "불교의 교리와 사회문제를 접목시켜 그 해결방안을 제시한 이번 포럼은 형식적인 면에 그치지 않았기에 의미가 있다"며 "이번 행사를 통해 많은 것을 보고 느낀 만큼 앞으로 한국의 불교발전에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다"고 3박 4일간 포럼에 대한 소감을 밝혔다.

한편, 세계평화기원법회 및 폐막식 마지막에 선언된 '푸토우산 선언문'은 사부대중의 힘찬 박수로 만장일치 통과됐다.

〈다음은 '푸토우산 선언문'이다〉

1. 선한 마음을 키워 선한 행동을 하면 인간의 마음이 선해진다.
2. 가족 간의 관계가 굳건하고 사랑이 충만하면 가정이 화목하다.
3. 진심으로 서로를 대하고 평등하게 협력하면 인간관계가 순조로워진다.
4. 안분지족하고 모든 일이 편안하면 사회 또한 평안해진다.
5.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고 포용하면 문명간의 화합이 이루어진다.
6. 서로간의 마음을 이해하고 원한을 우정으로 바꾸면 세상이 평화로워진다.



◇한국불교전래 1634주년을 기념하고 21세기 세계평화와 지속가능성을 위한 2006 세계종교지도자대회 기원법회를 봉행하고 있다.

인류와 한반도의 평화, 화합

세계종교지도자대회 성공 기원법회

(재)만해사상실천선양회(총재 지관)가 6월 개최 예정인 "2006 세계종교지도자대회" 기원법회를 4월 25일 롯데호텔 크리스탈 볼룸에서 개최했다.

"인류와 한반도의 평화, 화합을 위한 2006 세계 종교지도자대회 기원법회"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을 비롯해, 태고

종 총무원장 운산 스님, 천태종 총무원장 정산 스님, 진각종 총무원장 회정정사, 이명박 서울시장, 함세웅 정의구현사제단 고문신부 등 사부대중 1000여명이 참석했다.

영상을 통해 올려 퍼지는 만해평화지종 33타로 시작된 이날 행사는 헌동·헌화, 국민의례, 개회선언, 법어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재단법인 만해사상실천선양회 총재인 조계종 지관 총무원장은 법어를 통해 "세계종교지도자들을 한자리에 모시고 인류의 평화와 지구촌의 미래를 협의하며 우정을 나눌 수 있게 된 인연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불교전래

1634년이라는 유구한 역사는 자라하기에 앞서 역할과 책임을 아우르는 의미로 이해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만해축전 김진선 대회장은 "그간 우리 종교계는 우리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분열과 반목을 자비와 사랑으로 통합과 화합으로 이끌어 주셨으며 실천으로 앞장서 주시고 기도로 도와 주셨다"며 "지금까지 베풀어 주시고 보내주셨던 사랑과 자비의 마음으로 인류와 한반도의 평화와 화합을 이끌어 주시는데 더욱 힘써주시기를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부탁드립니다"고 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이명박 서울시장,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 고문 함세웅 신부 등도 참석해 축하인사를 전했다.

2006 세계종교지도자대회 준비위원회장인 연기영 교수는 "부처님 사상이 이 땅에 들어온지 1634년 동안 우리문화의 정신적 지주가 되어 왔으며 자비행을 실천해 왔다"며 "이러한 정신을 기리고자 세계평화와 지구촌의 지속가능성을 주제로 '세계종교지도자대회'를 개최함에 있어서 원만한 대화가 성취되길 바란다"며 발원문을 낭독했다.

만해축전의 일환으로 6월 8일부터 14일까지 열리는 '세계종교지도자대회'는 '21세기 세계평화와 지속가능성을 위한 종교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국제학술회의를 갖고, 양산 통도사, 경주 불국사, 서울 명동성당, 여의도 순복음교회 등 한국의 대표적인 종교시설을 방문할 예정이다.

“사찰 경영도 탈(脫)아마추어 시대”

실천불교승가회, 연구·견학 등 추진

사찰 운영도 탈(脫)아마추어 시대를 맞고 있다. 수행과 기도, 포교의 역할을 수행하는 사찰도 급변하는 시대상황에 맞춰 종교적 신앙 공간을 뛰어 넘어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는 공간으로 거듭날 것을 요구받고 있는 것. 특히 도심의 사찰은 문화·휴식을 제공해야 하는 것은 물론 지역사회와의 한 축으로서의 역할도 수행해야 한다.

실천불교전국승가회(공동의장 성관·효립)가 이 같은 시대적 요청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기 위해 사찰 경영에 대한 심도깊은 연구를 진행한다. 사찰의 관리운영과 경영, 재원확보 방안, 신도지향적 프로그램 개발, 차별화된 사찰의 역할에 필요한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등 분야별 사찰운영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한다

는 취지다.

이 연구의 첫 장정으로 동국대 사찰조경연구소와 함께 4월 27일 오후 2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현대 사찰의 기능과 역할'을 주제로 1차 프리젠테이션을 가졌다. 프리젠테이션은 △신도지향적 현대사찰 △일본 전통 사찰에서의 현대적 기능 도입 △현대사찰의 효율적 공간활동 등을 세부 주제로 영상으로 발표했다.

실천불교전국승가회는 또 외국사찰의 선진사례를 배우기 위해 일본의 주요 사찰 견학도 5월 16~20일 다녀온다. 견학단은 동국대 사찰조경연구소 홍광표 교수를 비롯해 전문가들과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소속 스님 및 실무자로 구성될 예정이다.

부처님과 10대 제자 희귀사리 전시

4월 24일~5월 15일, 전남 대원사 티벳박물관서



◇석가모니 부처님, 목련 존자와 사리불 존자, 아난다 존자 등 약 1000여 개의 희귀사리들이 대원사 티벳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다.

석가모니 부처님을 비롯한 불교 성인들의 사리가 한국에 열렸다. 이번 전시는 '마이트레야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석가모니 부처님, 목련 존자와 사리불 존자, 아난다 존자 등 약 1000 여 개의 희귀사리들이 한국 불자들을 찾는다. 이와 더불어 밀라레파, 나가르주나(응수보살), 예세 초결 등의 티베트 불교 성인들의 사리도 함께 전시되었다.

전라남도 보성군 대원사 티벳박물관(관장 현장 스님)은 4월 25일부터 5월 15일까지 '미륵 불상 심장전(心臟殿) 사리 세계순례' 한국 전시를 열었다.

능인선원, YBA 창립... 실천·국제교류 주력

청년 불교 운동의 새로운 모델 제시

서울 강남 능인선원(원장 지광)이 차세대 한국불교를 이끌어 줄 '젊은 붓다 만들기'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능인선원은 4월 23일 선원 대법당에서 YBA(Young Buddha Association) 창립총회를 갖고 설립 준비경과 보고 및 향후 활동 사업을 확정하는 등 봉사활동과 국제교류 활동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매진하겠다고 선언했다.

능인선원의 이날 YBA 결성에 참여한 분야별 전문가에서도 앞으로 활발한 활동이 기대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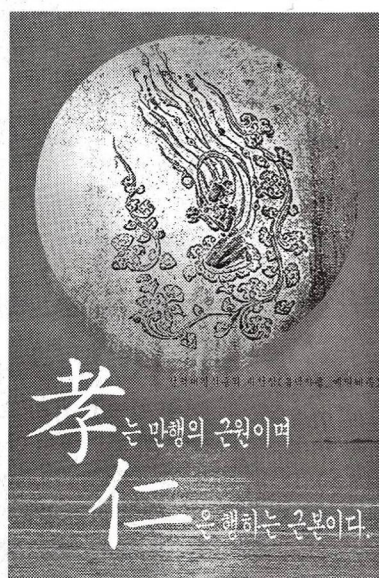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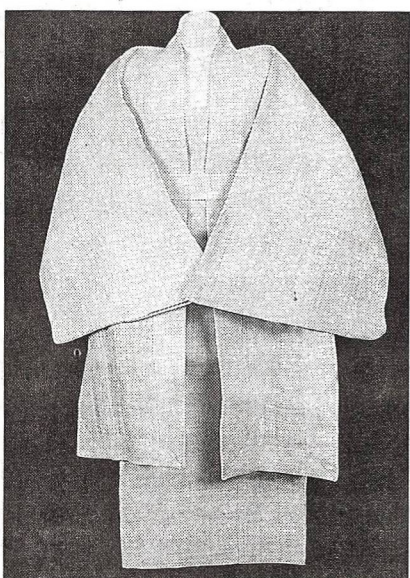
YBA 교문을 맡은 조계총림 방장 보성 스님을 비롯해 후원 분야에 장경작 롯데호텔 대표이사, 추병직 건교부 장관, 교육 분야

에 양태식 서울교대 교수, 이종원 중앙대 교수, 자원봉사 분야에 중앙승가대 교수 승인 스님 등 10명의 이사진에 포진해있다.

YBA는 무엇보다도 'Global Hope' 활동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2005년부터 해온 초청 문화행사 '한국-티베트 청년 한마당' 등의 국내거주 티베트 이주노동자 지원 사업을 올해부터 동남아 이주노동자로 확대·실시한다. 또 4월부터 선재마을의료회와 연계해 월 1회 능인복지관 건강관리실에서 '무료 진료봉사'를 한다.

현재 YBA는 지진 피해 지역 카와이 글로벌 학교에 1만3천 달러를 지원, 150여명 학생을 수용할 수 있는 초등학교 1곳의 설립을 끝냈다.

孝는 만행의 근원..., “진삼베 수의”로 孝를 실천하세요



수의(예복)이란?

생·노·병·사(生老病死)의 고통과 모든 번뇌를 버리고 극락왕생할 때, 또한 조상님이 계신 곳으로 갈 때 입는 옷으로서 원단은 주로 진삼베를 사용했으며, 예로부터 조상님들께서는 수의를 준비해 두시면 집안에, 우환과 삼재를 물리치고 무병장수를 누리다하여 음양의 조화를 맞추어 미리미리 준비해 두었던 옷입니다.

불교종중에서는 한국원사직물시험연구원으로부터 시험 성적표를 받은 100% 진삼베 원단으로 보증받아 제작한 수의를 고도님들과 불자님들께 보급하고 있사오니 많은 성원 바랍니다.

진삼베수의

삼베(大麻)는 고유의 독특한 향균기능을 함유하고 있어 예부터 조상님들의 생활속에서 전통적으로 이용되어 왔습니다.

진삼베수의는 사부대중들이 입었던 수의로써 100% 진삼베(화순포) 220자를 사용하여 엄밀한 작업공정을 통하여 작품으로 제작된 최고급 제품입니다.

수의내용

男 : 도포, 도포머, 두루마기, 두루마기머, 겹저고리, 속저고리, 겹바지, 속바지, 머리싸개, 조발랑, 베개, 입싸개, 악수, 얼굴싸개, 손싸개, 턱받이, 버선, 대님, 행진, 천금, 지금, 장매, 맷배 (총23종)

女 : 원삼, 원삼머, 겹저고리, 속저고리, 겹치마, 속치마, 겹바지, 속바지, 머리싸개, 조발랑, 베개, 입싸개, 악수, 얼굴싸개, 손싸개, 턱받이, 버선, 족두리, 천금, 지금, 장매, 맷배 (총22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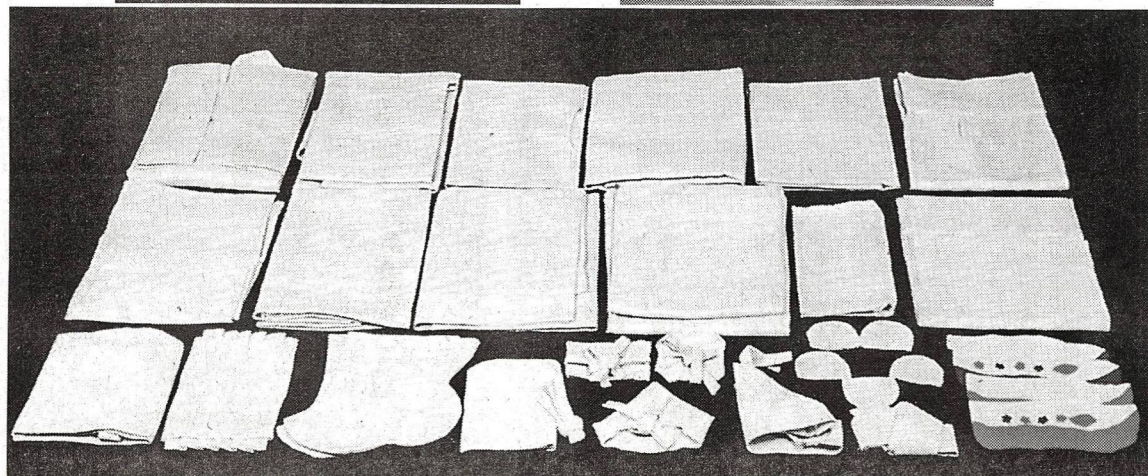
무료제공

본 수의를 구입하시면 건, 완장, 행진 각 10장씩과 명정, 관보, 습신, 예단 등 부속물 일절 및 아들, 며느리, 딸, 사위들이 입는 상복을 가족수대로 무료로 제공해 드립니다.

수의보급가격

120만원(3회 분할납부 가능) 결제방법 : 온라인입금

연락처 : 불교총지종 통리원 (02-552-1080~3) * 수익금은 사원의 만다라 봉안불사에 쓰여집니다.



교계소식

“청아한 목소리로 부처님 마음 표현” ‘18회 연꽃노래잔치’ 열려



◇연꽃 노래잔치에 참가한 어린이들과 행사 대표단들이 화합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부처님오신날을 기념하는 어린이 찬불가 노래잔치가 열렸다. 서울불교청년회(회장 김대원)가 주관하고 봉축위원회가 주최하는 '18회 연꽃노래잔치'가 4월 23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지하공연장에서 열려 100여명의 '전진불'이 찬불가 실력을 겨뤄 이선희(은석초 4학년) 어린이가 대상을 수상했다. 종단협의회와 교계언론사가 후원하는 이번 노래잔치는 중합창 부문에 고

설 어린이집 합창단 등이 참가했다. 오전 10시 개최된 이날 노래잔치는 개회 의식에 이어 중·합창단의 경연과 독창경연, 장기자랑, 대한불교소년소녀합창단과 17회 대회 대상수상자 김운정(지산초등학교, 불림사 어린이부) 양의 축하, 지도선생님과 함께 하는 꼭지점 댄스 시간 순으로 진행됐다. 지관 봉축위원장 스님은 주최측에 미리 전달한 법문을 통해 “어린이는 우리의 희망이자, 기둥”이라며 “미래 불심의 주역으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부처님의 실천에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하고 ‘어린이 포교를 위해 노력해줄 것’을 주관단체에 주문했다. 운산 태고종 총무원장 스님도 축사를 통해 “맑고 밝은 어린이 여러분들의 눈·귀·코·입·몸을 대하면 우리 어른들은 배울 점이 많다는 것을 인식하게 된다”며 “청아한 목소리로 부처님 마음과 같은 세계를 그려내는, 같고 닮은 실력을 마음껏 발휘해 노래잔치가 빛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수행종풍 진작·승려 교육 매진” 의지 천명

천태종 정산 총무원장 취임법회 봉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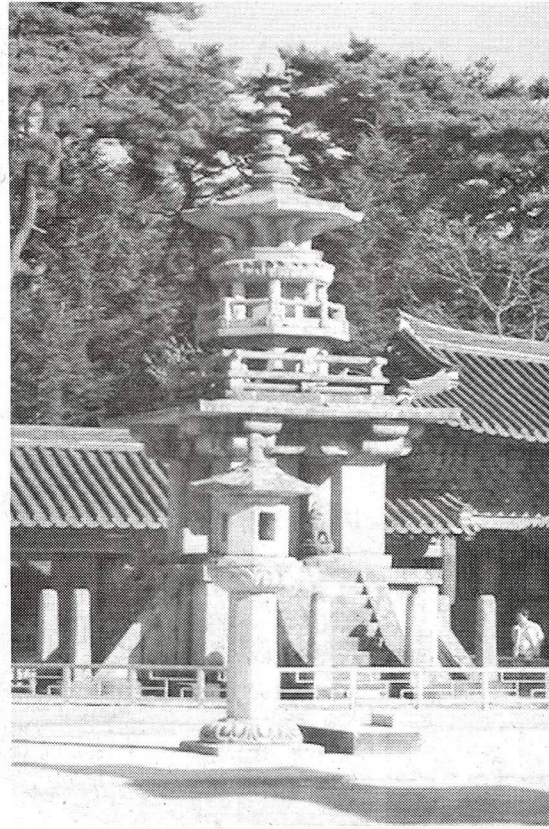
천태종은 지난 4월 9일 총본산 단양 구인사 설법보전에서 '제14대 정산 총무원장 취임 대법회'를 봉행했다. 사부대중 1만여 명이 운집한 가운데 봉행된 취임 법회는 삼귀의, 반야심경 봉독, 상월원각 대조사 법어, 도용 천태종 종정예하 법어, 이임사, 취임사, 축사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도용 천태종 종정 스님은 법어를 통해 “불이 오니 연못가에 새싹이 파릇파릇 돋아나고 버드나무 위 아래로 날아다니며 노래하는 산새들의 울음소리가 달라졌다. 오늘 이 문중에 복숭아꽃 한가지 붉게 피었으니 근심 걱정 다 흐르는 물에 흘러보내고 다함께 입을 벌려 웃으며 봄바람을 맞자”며 정산 스님의 취임을 축하했다. 전임 운덕 총무원장 스님도 이임사에서 “재임 중에 온갖 고뇌와 갈등을 느끼며 마음의 허약함을 느낀 적이 많았다”며 “정산 총무원장님이 천태종단

에 부여된 역사적 소명을 다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신임 정산 총무원장은 취임사를 통해 “운덕 총무원장 스님은 탁월한 지도력을 발휘해 (천태종을) 한국 불교의 중심 종단으로 우뚝 서게 했다”고 화답했다. 이어 정산 스님은 “종단의 수행종풍 진작과 승려 교육에 전념하고, 사부대중의 의견을 적극 수렴한 중무행정을 펼치는 한편, 비구니 스님들의 활동 반경을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며 종단 운영에 대한 포부를 밝혔다. 취임 법회에는 노무현 대통령의 축하메시지를 비롯해 지관 조계종 총무원장 스님, 운산 태고종 총무원장 스님 등 각 종단 관계자와 다수의 정치인이 참석해 정산 스님의 취임을 축하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문재인 청와대 민정수석이 대독한 축하메시지를 통해



◇천태종 제14대 총무원장 정산스님이 취임사를 봉독하고 있다.

국보 56.4%-보물 65.3%가 불교문화재 문화부 '06 불교문화재 현황목록집 발간



◇경주 불국사에 위치한 국보 제20호 다보탑

한국의 국보 307점 중 173점(56.4%), 보물 1431점 중 935점(65.3%)이 불교문화재인 것으로 조사됐다.(1월 31일 기준) 조계종 총무원 문화부가 5월에 발간 예정인 『2006년도 불교문화재 현황 목록집』에 따르면 국가지정문화재 2817

점 중 1180점이 불교문화재로, 전체 문화재의 41.9%에 해당한다. 이는 2002년도 조사현황과 비교해볼 때 국보 2점, 보물 64점을 비롯해 전체 70점이 늘어난 현황이다. 또한 시도유형문화재 2219점 중 1173점, 시도민속자료 317점 중 18점, 시도기념물 1462점 중 101점, 문화재자료 1982점 중 607점이 불교문화재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는 조계종 문화부가 문화재청 등록 불교문화재 목록을 토대로 직접 전국 시도 문화재 관련부서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그동안 문화재청에 등록되지 않았던 시도문화재들이 대거 포함돼 2002년 대비 70여점이 늘어난 결과로 나타났다. 불교문화재 소유자 현황을 살펴보면 조계종이 소유한 국보는 62점으로 전체 35.8%에 해당되며, 타종단 소유 국보가 2점, 국공유가 71점, 개인 소유가 38점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보물 935점 중 422점(45.1%)이 조계종 소유이며, 타종단이 21점, 국공유가 339점, 개인 소유가 152점, 기타 1점인 것으로 나타났다. 각 교구별 문화재 소장 현황을 살펴보면 국보의 경우 38점을 보유한 제11교구(불국사)가 가장 많은 국보를 소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불교문화재 현황 상으로는 146점을 보유한 총무원 직할 교구가 가장 많은 문화재를 소장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사형수 다섯명에게 ‘불자의 길’ 열려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지난 잘못을 참회하는 사형수에게도 불자의 길이 열린다.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은 불기 2550(2006)년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5월 1일 오후 3시, 서울구치소 대강당에서 사형수 5명을 대상으로 수계법회를 봉행한다.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사형수를 대상으로 조계종 총무원장이 직접 계를 주는 일은 처음 있는 일이다. 총무원장 지관 스님은 수계법회를 통해 한순간 잘못으로 고통과 실의에 빠져 있는 사형수 및 재소자들을 격려하고, 이들이 진실로 참회하고 건강한 수형생활을 할 수 있도록 축원할 예정이다.

정교 다이제스트

▶집안 보이지 않는 ‘세균 덩어리’ 퇴치하는 생활수칙

1. 침구와 속옷
삶는 것이 좋은 방법. 그것이 어렵다면 55℃ 이상의 고온으로 세탁한다. 진드기가 번식하지 못하도록 햇빛이 강한 오후 2~3시에 내다 말리는 것이 좋다.
2. 습도
진드기뿐만 아니라 곰팡이 역시 습한 실내를 무척 좋아한다. 실내 습도를 50% 미만으로 줄이는 것 한 가지 방법.
3. 커튼
미세 먼지가 쌓이기 쉬운 커튼. 얇으면서 면으로 된 것이 가장 좋다. 화학섬유로 돼 있거나 두꺼운 것일수록 많은 먼지가 발생한다.
4. 인형, 말린꽃, 카펫
이런 소품들은 진드기가 서식하기 가장 좋은 환경. 거실에 쓸데없는 소품을 늘어놓지 말고 치우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후라이팬의 기름때가 심할 경우

냄비나 프라이팬에 씻어내기 힘들 만큼 기름때가 졌으면 직사광선을 쬔 다음 닦아 보자. 하루 정도 햇빛을 쬐이면 기름때가 저절로 벗겨져 저녁에는 깨끗해진다.

▶곰팡이, 진드기 걱정없는 카펫 관리법

카펫은 공기가 잘 통하지 않기 때문에 집안 내 곰팡이, 진드기가 많이 생길 수 있다. 호흡기 질환과 피부염의 원인인 진드기를 퇴치하기 위해서는 습도를 낮추는 것이 중요하므로 카펫 위에 방석 등을 장기간 깔지 말아야 한다.

▶유리창의 성애 제거하려면

겨울에는 유리창에 성애가 잘 낀다. 이것을 무리하게 떼려려면 유리창이 깨지는 수도 있다. 이럴 때는 조그만 소금주머니를 만들어 소금을 넣고 이것으로 유리창을 닦으면 좀처럼 잘 얼어붙지 않는다. 그리고 유리창이나 겨울에 김이 서리지 않게 하려면 담배꽂초로 유리면을 닦으면 된다.

▶냉장고의 냄새 제거하기

냉장고가 냄새가 나지 않도록 하려면 냉장고의 음식들을 꺼낸 후 식초나 레몬으로 닦아내고 야채박스와 선반은 물로 깨끗이 헹구내고 마른 수건으로 물기를 닦아낸 다음 햇빛에 말리면 좋다.

서 초 실 버 의 원

양재동에 새로운 사옥을 신축하여 가락신경정신과의원에서 노인치매 전문요양병원인 서초실버의원으로 개원하였습니다.

1995년 서울에서 최초로 개원한 치매/중풍 전문요양병원으로 2003년부터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갖춘 의료진과 간호진이 다년간 축적된 경험과 기술 및 따뜻한 정성으로 잘 모시겠습니다.



김장규 서초실버의원 원장

전문진료과목

- 치매
- 뇌졸중
- 노인성 우울증

진료 시간

평일(토) : 09:00~18:00

일요일 & 공휴일 : 예약진료

응급 / 입원환자 제외

최고의 진료 및 시스템 온라인 상담 : www.elderlynp.co.kr
전화상담 : 02-575-1850 Fax : 02-575-8275
주소 :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402-3번지

주요경력

- 1991년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졸업
- 1996년 서울대학교병원 신경정신과 전문의 취득
- 경기도 연천군 보건의료원 정신과과장
- 2000년 전임의과정 수료(서울대학교병원, 노인정신의학 전공)
- 2001년 석사학위 취득(서울대학교 의과대학) 호주 멜버른대학 연수 (IMHLP: International Mental Health Leadership Program)
- 2002년 박사학위과정 수료(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용인정신병원 및 경기도립노년전문병원 정신과 과장
- 전국 정신요양시설 평가위원회 위원

마음공부가 되는 영화 이야기

백지순/총지사 교도

5) 메종 드 히미코(2006)

소중하다, 소중하다...

“나는 너를 참 좋아한다”

- 자신이 버린 딸과의 재회에서 아버지가 전하는 말

그곳엔 무언가 있다

오래전 자신과 어머니를 버리고 게이라고 커밍아웃한 아버지 히미코를 증오하며 살고 있는 사오리. 그에게 어느 날 아버지의 연인인 듯한 아름다운 청년 하루히코가 찾아온다.

아버지가 암 말기라며 딸인 사오리에게 간병을 부탁하는 것이다. 하지만 아버지에게 대한 증오심으로 사오리는 연신 거절하고, 하루히코는 사오리의 경제 사정이 안 좋다는 것을 알고는 아르바이트를 제안한다. 다른 아들 아버지 히미코가 업계에서 은

진부하지 않은 휴먼 드라마.

이미 <조제, 호랑이 그리고 물고기들>로 특별한 사랑 이야기를 하는 재주를 보여

진부하게 이야기를 끌고 가지 않는다. 가족 간에 깊이 파인 몇 십 년 세월의 고통이 미안하다는 말이나, 너를 사랑한다는 말로 채워질 수 없다는 걸 그는 너무 잘 알고 있는 것이다.

코믹함과 비현실적인 아름다움으로 극복한 동성애 코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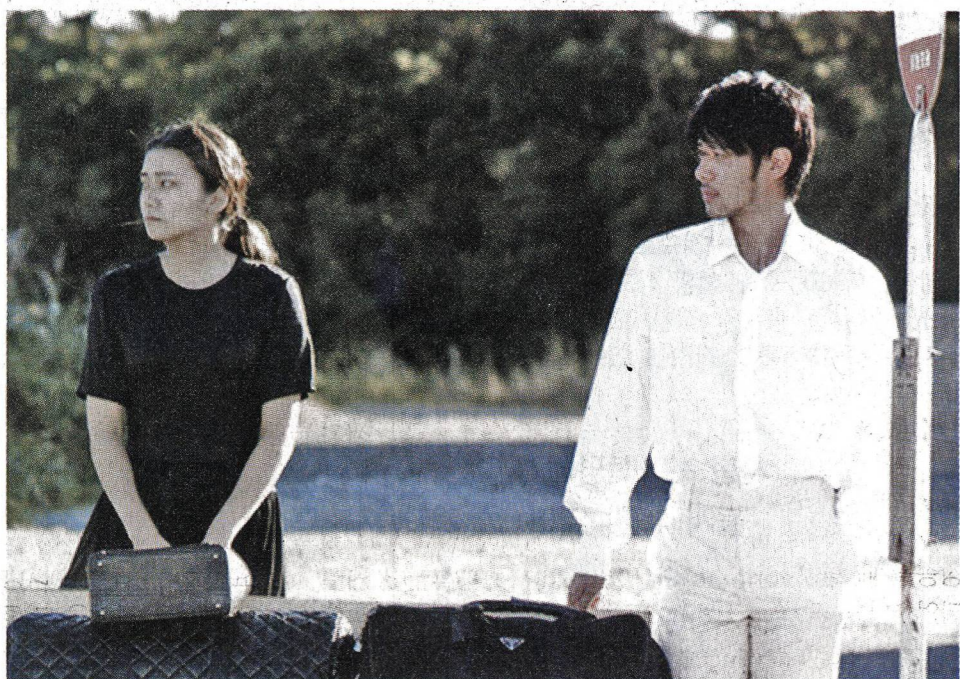
이 영화의 볼거리는 정말 다양하다. 게이 할아버지들의 대책 없는 주점과 코믹함으로 영화 초반부엔 그들이 동성애자라는 사실을 관객들은 부담 없이 받아들일 수 있다. 또한 메종 드 히미코의 환상적인 인테리어와 바닷가 배경은 비현실적일 정도로 아름답다.

유독 그곳에서 현실적인 캐릭터로 보여지는 건 사오리. 하지만 그녀도 점차 그곳에 동화되기 시작하면서 그 현실성을 벗어버리게 된다.

어쩌면 아직은 대부분의 우리 관객들에게 상당히 불편할 소재를 작위적이지 않고 자연스럽게 풀어갈 수 있었던 건 이런 다양한 볼거리 덕분이 아니었을까. 메종 드 히미코, 그곳엔 정말 특별한 그 무엇이 있음이다.

추천사

어쩌면 사랑한다 말보다 더 따뜻한 말은 소중하다 말일 거 같다는 생각이 들게 하는 영화.



퇴 후 바닷가 근처에 마련한 게이 양로원에서 일요일마다 일을 하는 것. 히미코 본인 역시 지금 그곳에서 요양 중이다. 결국 사오리는 그 제안을 승낙하게 되고 그곳, 메종 드 히미코를 찾아가게 된다.

하지만 아버지의 영향으로 게이들에 대한 혐오감으로 가득 찬 사오리는 그곳의 거주자들과 사사건건 부딪히기 시작하고, 아버지인 히미코의 병세는 악화되기만 한다. 사오리, 그녀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그를 용서할 수 있을까?

준 이누도 잇신 감독의 신작. 감독만의 인간에 대한 이해심은, 가족 간의 증오, 이해, 용서 등의 너무나 식상한 코드들에도 불구하고 작위적인 용서의 의식 등으로

이달의 사찰음식 ⑤

▶머위잎된장무침

콩가루 ½컵



큰술, 청장 1작은술

재료

머위 대 30g, 된장 2큰술, 고춧가루 1작은술, 참기름 1작은술, 깨소금 1

만드는 법

① 표고버섯, 다시마, 무를 넣고 1시간 정도 끓여서 맑은 장국을 준비해 둔다.
② 썩은 어린 것을 선택하여 씻어서 소쿠리에 걸러 물을 뺀 다음 생콩가루로 옷을 입힌다.
③ 준비해 둔 장국이 펄펄 끓기 시작하면 건더기(버섯, 다시마, 무)를 건져내고, 옷을 입힌 애숙을 살살 퍼서 넣고 살짝 끓인다

▶ 하루나김치



재료

하루나 200g, 들깨죽 2큰술, 고춧가루 2큰술, 생강 1쪽, 소금 2큰술

만드는 법

① 머위대는 어릴 때 잎과 같이 먹을 수 있기 때문에 끓는 물에 소금을 약간 넣고 살짝 데친 후 찬물에 헹구어 물기를 꼭 짰다.
② ①의 나물에 된장, 고춧가루를 넣고 주물러서 애벌 무친 다음 청장과 깨소금, 참기름을 넣고 무친다.

▶ 두릅밀전병무침



1작은술, 청장 1작은술, 참깨 1작은술, 참기름 1작은술

재료

두릅 20g, 밀가루 ½컵, 소금 약간, 식용유 약간, 물 ½컵, 고춧가루

만드는 법

① 꽃송이가 있는 하루나를 선택하여 살짝 절였다 씻어 소쿠리에 건져 물기를 뺀다.
② 들깨죽에 고춧가루, 생강즙, 소금을 넣고 섞은 후 ①의 재료를 넣고 부드럽게 버무린다.
※ 꽃송이가 있는 하루나는 더욱 고소하다.

▶ 죽순버섯볶음



재료

죽순 20g, 표고버섯 5개, 팽이버섯 1봉지, 홍고추 1개, 풋고추 1개, 소금

만드는 법

① 두릅은 깨끗이 씻어서 -●것은 밀동에 +자로 칼집을 넣어 끓는물에 소금을 약간 넣고 살짝 데쳐서 물기를 뺀다.
② 밀가루에 물, 식용유, 소금을 약간씩 넣고 오래 저어 끈기가 나도록 걸쭉하게 반죽한다.
③ 팬을 달구어 기름을 얇게 두르고 밀전병을 얇게 부쳐서, 차게 식혀 밀전병을 가로 1cm, 세로 4cm 길이로 자른다.
④ 넓은 그릇에 두릅과 밀전병을 넣고 고춧가루, 청장, 참깨, 참기름으로 무친다.
※ 두릅은 덜 삶아지면 밀동이 까맣게 변한다.

▶ 애숙탕



재료

애숙 15g, 표고버섯 3장, 다시마 약간, 청장 2큰술, 물 10컵, 생

만드는 법

① 통조림 죽순은 빗살 모양으로 썰어서 냉수에 여러 번 헹구어 내고, 죽순은 판 즉시 바로 손질하여 찹쌀물에 넣고 삶아 끓은 맛을 뺀 다음 겉질을 벗겨 썬다.
② 표고버섯은 미지근한 물에 불린 다음 굵게 채썰고, 홍고추와 풋고추도 씨를 제거하고 채썬다.
③ 두꺼운 팬에 식용유를 두르고 달구어진 ①의 죽순을 넣고 볶다가 소금으로 간을 한다.
④ 표고버섯과 팽이버섯도 따로따로 볶아 식혀 둔다.
⑤ 준비한 재료를 모두 합한 다음 깨소금, 참기름을 넣고 골고루 양념하여 버무린다.
(자료제공 : 한국전통사찰음식문화연구소)

이구찜, 꽃게찜, 간장게장 전문

풍(豊) 원(元)

어린 시절 어머니의 옛 맛과 정성이 그대로 깃들여 있는 곳

FOOD 전문점

풍원(豊元)

이구찜·탕
간장게장
꽃게찜·탕

340



진정한 웰빙이란 자신의 마음가짐부터 바꾸는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긍정적인 생각과 적극적인 행동으로 평소애 좀더 건강한 삶을 살고자 노력 하는 것입니다. 육체적이든 정신적이든 모든 면에서 새로운 생활의 활력을 줄 수 있는 무언가를 실천하고자 하는 마음의 여유가 있어야 합니다. 식생활을 바꾸거나 운동을 하거나 이 모든 것 역시 자신의 의지와 생각이 바뀌어야만이 가능한 실천의 한 방법입니다.

풍원은 진정한 웰빙문화의 식생활을 창조합니다.

주소 : 서울시 송파구 오금동 8-4, 방이역 부근
전화 : 02-3401-5919

정각사 '만다라 합창단' 부산 찬불가대회 참가

“음성공양으로 부처님의 법 포교”



총지종 정각사 '만다라 합창단'이 지난 4월 19일 부산 문화회관 대공연장에서 부산불교합창단연합회(회장 김귀련)가 주최하는 제 1회 부산불교합창단연합회 회장배 부산 찬불가 경연대회에 참가하였다.

봉축을 앞두고 처음으로 부산에서 개최되는 찬불가 경연대회는 각 사찰에서 음성공양을 펼쳐 온 불교합창단이 넓은 무대에서 시민 불자들과 호흡

지금되었으며, 수상 팀을 제외한 모든 참가팀에게 노력상을 시상해 우열을 떠나 합창단연합회가 하나가 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이번 찬불가 대회에 참가한 단원은 “불심이 높은 부산지역에서 부처님의 음성으로 불법을 전달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무엇보다도 많은 단체들이 참가하여 그동안 갈고 닦은 기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장이 마련되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지역간의 상호 이해와 교류”

종립 동해중 영·호남 학생교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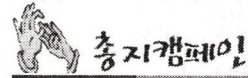
총지종 종립 동해중학교(교장 박수현)는 오는 5월 12일부터 13일까지 광주 봉선중학교를 방문하여 지역간의 상호 우호와 교류를 추진한다.

동해중은 지난 해 영남과 호남간의 학교 및 학생 교류로 호남지역의 교육환경과 내용, 지역문화를 이해하고 나아가 우리 고장의 문화를 알리고 지역간의 벽을 허물어 상호 이해와 우호를 넓혀나가는 계기를 삼고자 특색사업의 일환으로 광주에 있는 봉선중학교와 자매결연을 체결

정각사 만다라 합창단은 이번 부산 불교 찬불가 대회에 참가하여 우수한 성적을 거두지는 못했지만 아름다운 음성으로 부처님의 법을 전하여 관중들로부터 박수갈채를 받았다.

특히 그동안 자신들이 갈고 닦은 노래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장과 실력을 점검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으나 이번 기회를 통해 매년 노래실력을 경연할 수 있어 만다라 합창단의 발전과 성장에 기대하는 바가 크다.

부산불교합창단연합회는 “그동안 사부대중들의 서원으로 경연대회를 개최하려 하였으나 여러가지 여건으로 개최되지 못해 안타까웠지만 이번에 불심이 깊은 부산에서 찬불가 경연대회를 개최하게 되어 감개가 무량하며, 내년에도 찬불가 경연대회를 개최하여 불심을 고취시키겠다.”고 밝혔다.



아버이 은혜

공자가 자기의 뜻을 펴기 위해 이 나라 저 나라로 떠돌고 있을 때였다. 그날도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는데 어디선가 몹시 슬피 우는 소리가 공자의 귀에 들려왔다. 울음소리를 따라가 보니 곡성의 장본인은 고어(皐魚)라는 사람이었다. 공자가 우는 까닭을 물어보았다. 울음을 그친 고어가 입을 열었다. “저에게는 세가지 한(恨)이 되는 일이 있습니다. 첫째는 공부를 한답시고 집을 떠났다가 고향에 돌아가보니 부모는 이미 세상을 떠났습니다. 둘째는 저의 경륜을 받아들이려는 군주를 어디에서도 만나지 못한 것입니다. 고어의 말이 끝나자 공자는 제자들을 돌아보며

셋째는 서로 속마음을 터놓고 지내던 친구와 사이가 멀어진 것입니다.” 고어는 한숨을 쉬고는 다시 말을 이었다. “아무리 나무가 조용히 있고 싶어도 불어온 바람이 멎지 않으니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수목정이풍불지(樹欲靜而風不止). 마찬가지로 자식이 효도를 다하려고 해도 그때까지 부모는 기다려 주지 않습니다. 자육양이친불대(子欲養而親不待). 돌아가시고 나면 다시는 뵈지 못하는 것이 부모입니다. 저는 이제 이대로 서서 말라 죽으려고 합니다.” 고어의 말이 끝나자 공자는 제자들을 돌아보며

이렇게 말했다. “이 말을 명심해 두어라. 혼계로 삼을 만하지 않은가” 이날 총격과 함께 깊은 감명을 받은 공자 제자 중 고향으로 돌아가 부모를 섬긴 사람이 열세명이나 되었다. 한나라 때의 학자 한영(韓穰 淸 山)이 지은 시경(詩經)에 관한 책<한시외전(韓詩外傳)> 9권에 나오는 이야기다.

또 총지종 창종조이신 원정 대성사계에서도 효순(孝順)은 심덕(心德)의 대원(大元)이요, 백행(百行)의 근본(根本)이며 보리행(菩提行)의 으뜸이 된다고 종조법설집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치셨다. 곧이 5월은 가정의 달, 아버지날이라고 강조하지 않아도, 일 년 365일 내내 부모님 은혜는 항상 가슴에 담고 있어야 그 은혜 백만분의 일이라도 갚을 기회를 갖게 될 것이다.

신행체험 (31)



한영남 보살

(개천사 신정회 회장)

굳건한 믿음과 불공으로 소원성취

여 지금은 직장생활하고 있고, 막내 딸도 고대를 졸업하여 직장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공부를 잘하고 열심히 살아가는 것은 다 부처님의 공덕이라 생각합니다.

▲ 수행하면서 수행철학이 있다면?

저는 지성으로 서원하면 부처님께서 그 답을 주시어 소원이 성취된다고 생각합니다. 소원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일념의 마음이 앞서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굳건한 믿음입니다. “설마 부처님께서 내 소원을 들어 주실까?” 하는 의구심과 “몇 개월을 불공해도 들어주시지 않더라”며 믿음이 흔들리면 지극정성도 없애지고 소원 성취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분명히 내 소원을 들어주시지 않더라’하는 믿음으로 포기하지 말고 열심히 불공하고 수행하다보면 분명히 소원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 개천사 신정회 회장으로 서 개천사 교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우선 개천사 교도분들께

미안한 생각뿐입니다. 능력이 있고 신심이 높으신 분들이 많은데 미천한 제가 개천사 신정회 회장으로 선출되어 부담감이 앞섭니다.

▲ 종단에 바라는 점은?

모든 보살님들의 소원이 겹치지만 종단의 교화가 발전하여 ‘총지종’에서 수행하는 자부심과 긍지를 가졌으면 합니다.

교화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젊은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학생회를 만들고, 자성학교의 발전을 위해 유지부를 활성화, 노인분들이 휴양할 수 있는 노인요양원 설립 등 다양한 문화와 복지공간을 만들었으면 합니다.

다른 종단들을 보면 사원이 그 지역의 문화와 수행, 복지의 중심으로 발돋움하며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고루한 과거의 생각을 버리고, 시대변화에 적합한 수행공간과 수행법, 문화의 테마를 형성하였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총지종도 변화하여 생동감있고, 활동적인 정책의 시행으로 신명나는 수행풍토를 조성하였으면 합니다.

나도 한마디

총지종이 창종된 지도 어언 35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스승님들과 교도님들의 노력으로 많은 발전을 하였지만 유독 보살님, 각자님들의 노후 복지에는 소홀했던 것 같습니다.

창종 초기부터 열심히 불공하고 지금까지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는 보살님, 각자님들의 연세가 많아지면서 이 분들의 복지가 가장 급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요즈음 우리 보살님들이 모이면 화두는 이 이야기입니다. 보살님들 말씀이 “교도복지보다 더 급한 일은 없는 것 같은데 종단에서는 이렇다 할 진전을 보이지 않으므로 보살님들의 마음은 더욱 급하고 초조하기까지 하다.”고 합니다.

하물며 종단 차원에서 진전이 없으면 보살님들이라도 기금을 조금씩

모아서 시작해보면 좋겠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살님, 각자님들이 무로 노년요양시설에 계시겠다는 것도 아닙니다. 종단 입장이나 포교의 방편으로도 많은 도움을 주리라고 생각합니다. 보살님, 각자님들이 노후에 자식에게 걱정 안 끼치고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여생을 외롭지

교도들을 위한 노인복지시설을 마련하였으면

않게 보내시게 되면 뒤에 남은 자식들은 마음을 놓고 생업에 종사하고 그들의 노후걱정도 하지 않고 열심히 불공하게 되고 또 희망이 생기게 됩니다.

자녀, 손녀, 손자들은 부모님이나 노부님께서 절에서 운영하는 요양원에 계시면 자연히 절을 자주 찾게 되고, 총지종과 더욱더 친숙하게 되

고, 저절로 불자가 될 것입니다.

‘역삼재가노인복지센터’가 타기관으로 이관되었기 때문에 ‘역삼재가노인복지센터’로 지급될 예산을 보살님, 각자님들의 교도복지 활성화를 위해 지급하였으면 합니다.

우리 스승님들 중에도 ‘사회복지학’을 전공하신 분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분들이 주축이

하고 상호교환 방문을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번에 참가할 학생은 30여명으로 홈스테이가 가능하고, 지역의 문화를 알뜰하게 홍보할 수 있는 가정, 품행이 바르고 타의 모범이 된 학생을 선발하여 봉선중학교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한편 동해중은 9월 8일부터 9일까지 광주의 봉선중학교 학생들을 초청하여 부산지역의 문화를 홍보할 예정입니다.

다고 하지 않으면 이 문제는 자칫 영영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종단의 발전에 중요한 밑거름이 되고 창종당시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함께 해 주신 보살님, 각자님들 그분들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연세 높으신 보살님, 각자님들은 언제까지나 기다려 주시지 못하십니다. 첫 삼을 뜨는 것을 보시고 희망을 가지시게 해야 합니다. 이분들 중에는 지금 마땅히 가실 곳이 없는 분들도 계십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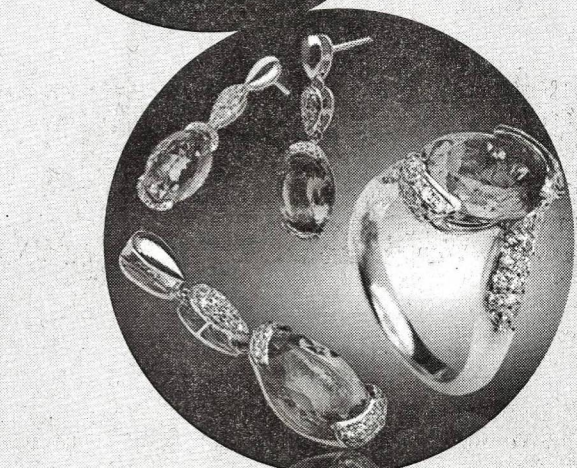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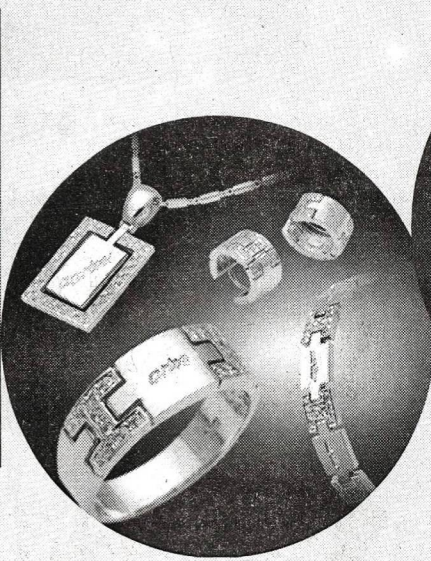
이 분들이 다른 종단으로 눈길을 돌리시지 않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이 분들을 위한 길만은 아니고 우리 종단 발전과 미래를 위한 길이기도 합니다.

적극적인 추진과 배려와 결단을 부탁드립니다.

(박묘정/총지종보 편집위원)

각종 귀금속 전문 도소매 천금사

아름다운 마음을 가진 사람은 아름다운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천금사는 아름다운 마음, 아름다운 보석을 만들어 제공합니다. 총지종 교도 및 불자들에게 한 해서 최상의 품질과 최저의 가격으로 판매하고, 수익금의 일부를 불교포교와 총지종 증흥불사에 회사하겠습니다.



천금사

주 소 : 서울시 중구 봉익동 159-3
대표이사 : 권경봉
전 화 : 02-743-7204
H. P : 011-771-7204

찾아오시는 길 : 지하철 종로3가역 11번 출구
종로공원쪽 첫번째 골목
삼보귀금속센터 내



부처님 오신날 봉축 연등축제



‘나’와 ‘너’가 하나되는 부처님 세상

부처님 오신날을 맞이하여 서울 동대문 야구장과 부산 부산역광장에서 열린 연등축제에서 총지종의 연희단과 교도들이 부처님 오신날을 봉축하고 소원성취를 발원하였다.



하늘 높이 솟아 무릇 중생을 제도하는 총지종



화려한 궁중복과 예쁜 얼굴에 매혹당한 관중들



하늘 향해 두팔벌려 나를 봐



부산지역 스승과 합창단. 교도들의 거리행진



연꽃처럼 아름다운 부처님 세상

천년의 잠을 깨고
우리 앞에 나타난 밀교(密敎) - 불교 총지종!
법신대일여래 비로자나부처님의
무언의 설법을 통하여 마음의 비밀을 깨달음으로써
즉신성불에 이르게 하는
정통밀교의 숭고한 가르침이 여기에 있다.
오탁악세를 정화하고 무량중생을
고통에서 구제할 비밀의 문!
그 문의 열쇠가 여기에 있다.



총지종 연희단이 아름다운 모습을 자랑하며 운동장으로 입장하고 있다.



서로 팔짱끼고 흥겨운 춤을...



동해중 풍물패의 거리한마당



예쁜 나의 춤숨씨 어때?



화려한 옷과 예쁜 마음, 이곳이 바로 극락정토